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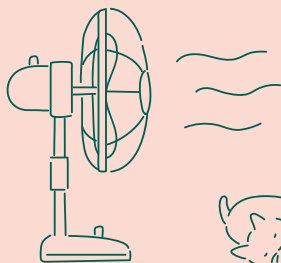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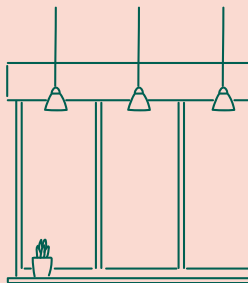
2021

일상문화예술교육

배 — 클래스

나의 일상, 나의 이야기

나의
일상이
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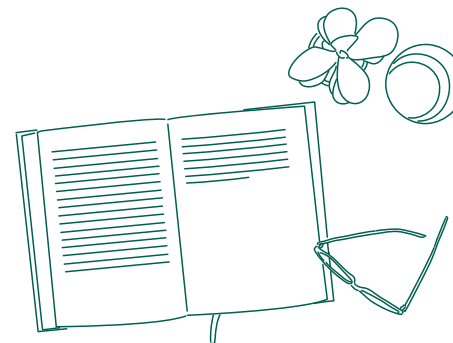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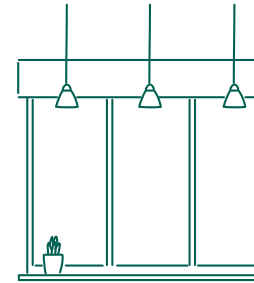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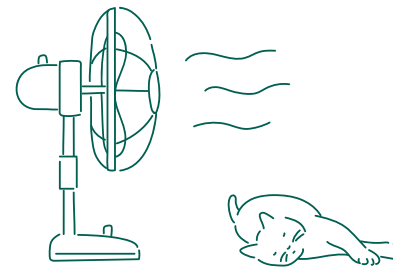
2021

일상문화예술교육

빼 — 클래스

나의
일상,
나의
이야기

나의
일상이
글이 된다



강의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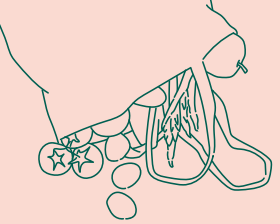
프리랜서 기자 겸 작가 **최하나**

바야흐로 영상의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글의 힘을 믿습니다. 영상에 어울리는 소재가 있듯이 글에 어울리는 소재도 따로 있기 때문이죠. 가족이나 친구에게 쉬이 털어놓기 힘든 철학적인 고민. 얼굴을 드러내고 말하기에는 힘든 아픔. 수치로 정확히 표현하기 힘든 기쁨과 환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얀 화면을 마주하며 쓸 말을 하나씩 고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성해서 저 너머에 있는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 없는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소통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죠.

저는 글을 씁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이 글 쓰는 기쁨과 매력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과 나누고 그들을 기어코 쓰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직장을 다니며 시작했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고 15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글쓰기 강의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단순히 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 뜻을 전하고 사람들을 글의 매력에 빠지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빠-클래스도 그랬습니다. 4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고 열심히 따라와 준 수강생분들 덕분에 거꾸로 힘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매주 보내주시는 글을 읽으며 감히 어딜 갈 수도 누굴 만날 수도 없는 이 엄혹한 시기에 자유롭게 인생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하나 있다면 수업은 끝이 났지만, 수강생분들의 글쓰기는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길 바란다는 겁니다. 글과 함께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감히 바라봅니다.



목 차

1주차	코로나 블루_김경미	8
<u>내 인생에서</u>	바다 안부_김은오	10
<u>가장 기억에</u>	아픈 날_김희성	12
<u>남는 일</u>	어떤 그리움_박서연	14
	특별한 여행_설지은	16
	나의 목소리를 찾는 일_이수현	19
	코로나19_조선영	21
	가장 인상 깊었던 일_호문웅	22
2주차	나의 작은 친구_김경미	28
<u>나의 단짝</u>	코로나19가 준 변화_김은오	31
	나를 알아가는 요즘 나의 시간_김희성	33
	울 엄마_박서연	35
	하이텐션 그녀_설지은	38
	나를 변화시킨 나의 단짝_이수현	40
	나의 단짝 놀부 신랑_조선영	43
	읽기를 즐기는 걸까, 사기를 즐기는 걸까?_호문웅	45

3주차	나의 첫 직장 이야기_김경미	50
<u>여름</u>	우이도 없는 우이도 여행_김은오	53
	그 여름, 뜨겁고 찬란한 프라하에서의 기억_김희성	58
	한 여름 속을 걷다_박서연	61
	마지막 선물_설지은	64
	12년 전 그 해 여름_이수현	67
	여름 우리집_조선영	69
	여름엔 뭐라고요? 당연히 맥주입니다!_호문웅	70
번외	너라는 존재의 기쁨_이수현	82
<u>기쁨</u>		

참여작가	김경미 김은오 김희성 박서연 설지은 이수현 조선영 호문웅
-------------	------------------------------------



01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코로나 블루

김경미

재작년(2019년) 극성수기의 여름휴가 기간에 갔던 「강원도 양양」 여행을 끝으로 여행다운 여행을
가지 못했다. 그래서 양양의 추억을 한번 글로 써보고자 한다.

2016년 가을에 떠난 이탈리아 신혼여행을 통해 유럽의 매력에 흠뻑 빠졌던 나는, 힘들고 고된 직장
생활 가운데 여름휴가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다가 휴가기간에야 비로소 활력소를
얻었다.

아니, 그럼 일년 중 활력이 있는 시간은 일주일뿐이란 말인가?

(네 맞습니다. 이것이 실화인가? 네 실화입니다)

그 다음해 동유럽, 그 다음해에는 크로아티아를 떠나면서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고
설레는 일인지 그때 알았던 것 같다.

문제는 회사에서 여름휴가로 허락한 기간을 2년 연속으로 여름보다 조금 늦은 초가을로 떠나면서
회사 및 동료에게 눈치가 보였던 터라 재작년의 여름휴가는 성수기 중의 극성수기. 아무도 뭐라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여름휴가의 한가운데 기간에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초극성수기에 강원도 양양으로
떠났다.

엄청난 무더위에 타는 듯한 햇볕과 싸우며 낙산사를 오르다가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랐고 수영도
못하는 내가 남편과 양양에서 가장 핫플레이스인 **SURFYY BEACH**에 가서 서핑을 배워보았다.

비틀비틀거리며 보드에 올라가려고 간간힘을 쓰다가 제대로 한번 서보거나 했나? 20분이 채 되지
않아 조개인지 굴 껍데기인지 모를 날카로운 것에 쓸려서 발에 피가 나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물에

서 나와 간단한 처치를 받고 남편이 보드에 뒤통뒤통 올라가려고 힘쓰는 모습을 앉아서 구경만 하게
되었다. 나름 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양양에서 우리가 이틀 동안 머물렀던 숙소는 전부터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었는데 TV가 없고 너무나
조용한게 특징인 게스트 하우스였다.

숙소 마당은 푸른 잔디가 넓게 있었고, 주변에는 건물이 없어서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맘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재가 있어 꼭 한번 가고 싶었는데, 매번 빈 방이 없었지만 운 좋게 우리가
가는 일정 중에 예약이 가능했다.

극성수기일 때라 평소의 2배 금액을 지불해야 해서 남편과 고민했지만 해외 여행경비에 비하면 적
은 돈이라며 서로를 위로하며 예약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곳은 지켜야할 수칙이 20가지였다. 하하

뭐, 읽어보면 쉽게 지킬 수 있는 수칙이었지만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너무 눈치보고 지내다 오는거
아니냐며 친구들이랑 엄청 웃었다.

그리고 작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동남아 여행을 온 것 같은 분위기의 쌀국수 집에서 이른 저녁을 먹고
동네산책을 했는데 집집마다 서퍼들이 숙박을 하는지 집 앞 마당에 서핑 용품들이 늘어져 있었던 기억.
그리고 타는 듯한 무더위가 지나고 해질녘이 되니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했던 기억.

그리고 남편과 의외의 순간에 가장 행복했었는데 아주 작은 카페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먹었던 아이스 커피와 스콘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처음 방문해본 강원도 양양에서 2박 3일 동안 모든 순간 행복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해 여름이 지나고 만삭의 임신부는 여행 한번 가보겠다고 전부터 눈여겨 보았던 경주에
있는 작은 게스트 하우스로 예약을 해보았다. 앞마당에 알록달록한 자그마한 들꽃들이 피어있고 주
인아주머니께서 정성스레 소식을 차려주시는 곳이었었는데 한창 코로나가 심해지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취소를 했다. 당시 경북지역에 4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였는데, 그땐 코로나가 극심한
공포로 다가왔던 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아직도 양양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이 마지막이지만 다시 갈 수 있겠지?

바다 안부

김은오

도시 속 바쁜 일상에서도 순간 순간 꿈 속에 빠져든 것처럼 눈 앞에 윤슬 반짝이는 바다가 보이고, 바다만큼이나 반짝이게 웃던 나의 기억이 함께 떠오른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일출과 파도 소리에 눈뜰 후 세수도 꾸밈도 없이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 내가 모아나라도 된 것처럼 주홍 빛 반짝이는 새벽 바다와 교감하던 시간. 바다가 내 마음 다 알아주는 것처럼 포근하게 느껴지곤 했다.

파도가 줄어든 시간에는 해변으로 나와있는 모두의 시선이 바다로 향한 채 돌아올 파도를 기다리며 별 거 아닌 농담에도 까르르 웃다가도, “저기 파도 올라온다!”는 라는 누군가의 말에 모래에 깊은 발자국 남기며 서둘러 바다로 향하곤 했다.

파도가 거칠던 어느 날, 나도 라인업에 들어가겠다며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다시 해변으로 뺄어져 좌절감을 안은 채 모래사장에서 저 멀리 라인업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때도 있었다. ‘다시 해보자!’ 굳은 결심으로 다시 바다로 달려든 후 어깨 근육이 마비될 때까지 패들해도 다시 또 해변으로 밀려나길 반복하던 날. 포기할까 싶다가도 괜히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느니, 대자연을 이기는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느니, 바다는 내 마음 다 아니 길을 내어줄거라느니, 뜬금없는 혼잣말이 자꾸 떠올라 포기가 안되더라.

바다로 달려들고 밀려나길 끝없이 반복하던 그 때, 어느새 파도 사이 길이 보이고 파도와 파도 사이의 템포에 익숙해지며 한 파도, 두 파도를 넘어 결국 라인업에 도착했을 때, 왜 눈물이 났을까.

바다는 오늘도 잘 있을까.

보드 위에 등둥 떠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모르겠는 바다 끝을 바라보며 나를 밀어줄 파도를 찾고 잡는 일. 그 기다림이 보고싶다. 바다가 너무 좋아 벽차다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땐 너무 미웠다가, 하루가 지나도 입안의 소금기가 사라지지 않을 만큼 거친 바다였다가, 몽글몽글 젤리처럼 부드러운 물결이었다가, 바다에 혼자 떠있는 것처럼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야하는 거라는 극한의 외로움을 쫓다가도 함께 라인업에 떠있는 사람들과의 즐거움에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해! 라는 혼잣말로 바다와 대화했던 시간들이, 마치 삶과 꼭 닮은 것 같아서 더 그립다.

내 안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뒤 돌아바라본 곳에 있는 바다가, 노을 빛 가득 담고 내 마음 다 안다는 것처럼 반짝이던 시간이 자꾸만 그리워서 오늘도 바다의 안부를 묻는다.



아픈 날

김희성

이마 한쪽이 따가워져서 '조만간 여드름이 나려나 보다'하고 여느 때처럼 무심코 지나쳤던 여름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항상 그래왔듯이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걸 먼저 끝내려는 습관대로 그렇게 쉴 새 없이 일에 치여 지나갔다. 목에 후끈 달아오르는 열이 느껴져 불현듯 목을 만지니 볼록한 뭔가가 잡혔다. 나의 몸은 내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왜 이렇게 머리가 깨질 듯 아플까요? 제가 한 번도 두통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마를 보시던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대상포진이네요”

“원래 이게 이렇게 두통이 심한가요?”

“많이 아프시죠.” 선생님은 안됐다는 듯 나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휘휘 저으셨다.

진통제를 먹고 나서 자려다가, 여태껏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울렁거림과 메스꺼움 때문에 삼켰던 물까지 모두 다 게워냈다. 머리가 지끈거린 데다가 현기증이 심해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바닥에 겨우 앉고 나서야 독한 진통제라며 몸에서 약이 안 받으면 그냥 집에 있는 타이레놀을 다시 먹어도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내가 왜 대상포진에 걸린 거지.

몸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많이 아팠다.

사람들은 건강관리도 자신의 몫이라고들 쉽게 말한다. 자신이 하지 않으려는 힘든 일은 ‘누군가’가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그 누군가가 자신이 아니길 바라면서. 그 해, 나는 그 ‘누군가’였고 그걸 알고 있었지만 한번 맡게 된 일이니 후회 없이 해보자는 생각으로 버텼었던 터였다. 그런데 내가 왜 아프기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아프면서 화나는 감정은 무엇일까. 자꾸만 눈물이 났다. 내게 주어진 1주일 휴가인데 대상포진이라니. 이건 너무하잖아. 방 안에서 지끈거리는 머리를 쥐어짜면서 일주일을 꼬박

약을 먹었다. 얼굴에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는 날엔, 상처받은 내 마음에 생긴 딱지도 과연 흉터 없이 떨어질 수 있을까.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밍고 싫더니, 그 화살은 점점 내게로 향해가고 있었다. 나는 왜 나를 보지 못하고 일만 했던 것일까. 나를 돌보지도 않은 채로. 이제껏 나를 보지 못하고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의문투성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남들은 4~50대에 온다는 대상포진을 30대에 겪은 나는, 체력과 의지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에 한참을 방황해야만 했다. 안됐다는 주변의 위로도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제 그만. 쉬어가도 된다. 이제까지 달려온 나를 놓아주자.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를 먼저 돌보고 내게 휴식을 줄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할 수 있을까? 용기가 필요하다.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지금이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나 자신을 토닥토닥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생겨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너무 소진되어버린 나를, 나 스스로 또다시 소진하면 안 되지. 충전의 시간, 힐링의 시간을 빠뜨리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는, 언제나 나를 향한 노력을 “먼저” 하자고, 그래서 내가 다시 상처받지 않게 하자고, 그렇게 하루하루 다짐해본다.



어떤 그리움

박서연

폐차를 했다. 빨간 내 차!

오빠의 염려와 배려가 묻어있던 차였다. 오빠 생전에는 오빠와 함께 신촌의 병원으로, 그 후엔 오빠가 영면하고 있는 봉안당으로 데려다준 차였다.

1996년 10월에 사서 2020년 10월에 폐차했으니 꼬박 만 24년을 함께 했다. 두세 해 전부터 에어컨이 말썽이었고, 맑은 날에는 멀쩡히 작동하다가 정작 비가 오면 꼼짝을 하지 않는 와이퍼는 진작부터 골치를 썩였었다. 정비소에 맡겨도 보았지만, 에어컨은 가스가 새는 곳을 찾지 못해서 못 고쳤고, 와이퍼는 맑은 날에는 작동이 잘 돼서 수리를 받을 수 없었다. 주변에서는 차를 바꾸라고 성화였지만, 여러 가지 의미와 애정이 담겨서,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금전적인 이유로 끌어안고 있었던 차였다.

굳이 그때 폐차를 해야만 했었던 이유는 없었다. 여름도 지났고, 비가 오는 날이나 올 것 같은 날은 안 가지고 나가면 그뿐이었다. 그런데도, 폐차를 감행한 것은 보험을 갱신하면서 노후 차량은 블랙박스 할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보험사의 방침에 ‘욱’ 하여 즉흥적으로 결정한 면도 없지 않았다.

폐차하던 날, 레커차에 끌려가는 차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공방을 옮길 때마다 짐을 실어 나르느라 까이고, 찌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뒷모습을 보니 정말 주마등처럼 함께 했던 시간이 지나갔다. 처음 계약부터 등록, 보험 등 차량 인수에 관한 모든 과정을 오빠가 다 해주었다. 면허는 내가 먼저 났었지만, 장롱 면허였던 나를 위해 근 일주일간 직접 연수도 해 주었고, 신호대기 중 음주 차량에 받히는 사고가 났을 때도 오빠가 뒷수습해 주었다. 암 수술 후 교회에 다니게 된 오빠가 엄마를 모시고 다니던 차였다. 엄마는 7년이 지난 지금도 빨간 내 차를 타고 오빠와

함께 교회 가시던 일을 회상하신다. 내 차, 내 빨간 차는 그냥 내 차가 아니라 오빠의 세컨카였고, 우리 가족의 차였다.

가끔 길에서 오래된 연식의 차를 보면 빨간 내 차 생각이 난다. 에어컨과 와이퍼의 문제만 빼면 비교적 연식보다 관리가 잘 된 차였기에 폐차가 옳은 결정이었는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 관리라는 게 결국 오빠가 처음에 잘 길들이고, 단도리해 둔 덕이었다. 드러나게 자상하거나 곰살맞은 성격은 아니었지만, 나와 가족에게 든든한 그늘이었던 오빠의 흔적이다. 나름 바쁜 오빠의 도움 없이 처리한 일도 많았던 것 같은데, 문득문득 오빠의 부재가 아쉬운 순간이 있다. “오빠라면……”, “오빠가 있었더라면……”. 아마 오빠와 함께였다면 다른 결정을 했을지도 모른다.

출근길, 오랜만에 멀리서 내 차와 같은 차종의 차를 보았다. 반가움은 잠깐이고, 종일 마음이 쓸쓸하다. 빨간 내 차를 그리워하는 것인지, 오빠의 부재를 그리워하는 것인지.



특별한 여행

설지은

첫 아이를 임신했다. 신혼생활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는데 덜컥 아이가 들어선 거다. 5월 26일 결혼하고 6월에 임신이라니...

임신 소식에 들른 남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다.

다음 날 남편은 임신 기념으로 여행을 가져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이와 함께 7월에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났다.

여행 날 저녁 시청역 3번 출구 앞에서 남편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외도, 보성 녹차밭을 여행하는 관광버스에 올라탔다. 임신 초기인데도 괜히 몸이 무거웠는데, 여행이라는 설렘이 몸도 마음도 가볍게 만들었다. 두런두런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 어느새 버스 안 불이 꺼지고 우리도 잠이 들었다.

새벽 3시쯤. 거제도의 한 사우나 앞에 버스가 멈춰 섰다. 좀 피곤하긴 했지만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도 싹 사라지리란 기대를 안고 낯선 아주머니들과 함께 사우나장에 들어섰다. 이게 웬 날벼락! 아무리 수도꼭지를 돌려도 냉수만 팔팔 쏟아졌다. 탕 안에 있는 물도 차갑기만 했다.

“무슨 목욕탕에 따뜻한 물도 안 나와요? 당장 돈 물어내요”

아주머니들은 단체로 목욕탕 주인에게 항의를 했고 주인은 리모델링 중인데 갑자기 온수가 안 나온다며 연신 사과를 했다. 나는 씻지도 못하고 머리까지 젖은 채 찻집한 맘으로 다시 버스에 올라탔다. 머리가 축축해서 그런지, 중간에 자다 깨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아 계속 뒤척였다.

새벽 6시경 버스가 한 식당 앞에서 멈춰 섰다. 이른 아침으로 먹은 맑은 대구 지리탕이 미식거리리는 속을 조금 달래주었다. 식당 앞 몽돌해변에 넓게 펼쳐진 검고 둥근 자갈밭을 남편과 함께 맨발로 걸었다. 발끝의 부들거림을 간직하고 우리는 외도로 가는 첫 배에 올라탔다. 유람선을 타고 해금강의 절경을 만끽한 뒤 본격적인 외도 관광에 돌입했다. 부부가 사랑으로 만들었다더니 외도 전체가 잘

가꾸어진 정원 같았다. 마치 동남아 신혼 여행지처럼 이름 모를 꽃들이 가득피어 있고 주변은 인생 사진 스팟이 널려있었다. 사진 몇 장 찍고 나니 피로가 밀려왔다. 잠도 설쳤지,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지... 경사진 오르막길을 보니 한숨만 나왔다. 바닥이 잡아당기기라도 하듯 한 발 한 발 떼기가 어려웠다. 더 이상 주변의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랫배도 살살 땀기고 강렬한 햇살 아래 내 얼굴은 구겨져만 갔다.

“또 오르막길이야? 너무 힘들다.”

차마 꺼내지는 못했지만 진짜 목구멍까지 ‘괜히 왔다’는 말이 차올랐다. 우리 남편은 지금이나 그때나 귀신같이 내 맘을 알아챈다.

“널 위해 결혼하고 준비한 첫 여행인데 너무한 거 아냐?”

나의 짜증 섞인 말들에 남편이 울컥한다.

그런데 내색하지 않기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임신 초기의 몸으로 비탈길을 오르는 일은 힘들기만 했다. 제발 집에 가고 싶다. 이 여행은 언제쯤 끝나는 건지...

외도에서 겨우 탈출한 후 한 세 시간 정도를 달려 전라도 보성 녹차밭에 도착했다. 하루 만에 경산도에서 전라도로 날아오다니... 역시 가성비 값인 여행이다. 우리는 오후 2시가 되어 겨우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전라도 밥상이 맛있어서인지, 너무 늦은 점심이어서 그런지 모두들 밥 두 공기씩은 똑딱이다. 역시 사람은 배가 부르면 매사에 너그러워지는 법이다. 내 표정이 조금 풀려지자 남편도 마음이 놓이는 눈치다. 함께 녹차밭을 구경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녹차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니 모든 게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아졌다. 녹차 아이스크림의 달달함이 모든 걸 용서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로 배가 나온 시기는 아니었는데 돌아가는 내내 안전벨트가 배를 어찌나 쪼이는지 벨트를 풀었다 땀을 반복하며 겨우 서울시청역에 도착했다. 내 최초이자 마지막 무박 버스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다.

날 위해 준비한 여행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해 하던 신랑도 이후에 사람들에게 애기했다가 ‘임신 초기 위험한 시기에 무박 버스 여행을 가면 어쩌냐며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 혼났다고 한다.

지금도 그 여행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한다. 솔직히 여행가서 뭘 보고, 뭘 먹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쓴 게 최선이다. 그냥 너무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우리 굳이 왜 무박 여행을, 그것도 버스를 타고 갔어야 할까?’ 이런 생각뿐이다.
남편에게 2007년 여름 외도 여행 이야기를 쓴다니 방으로 들어가며
“그거 나 욕 먹이는 건데” 하며 웃는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네.



나의 목소리를 찾는 일

이수현

나를 표현하는 일이 이제는 그리 멋지지 않다. 직업을 가진 사회인으로써, 두 아이의 엄마로써 열심히 사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야기를 글로 쓰라고 하니 붙잡고 싶지 않은 주제가 ‘일’과 ‘엄마’였다. 너무나 흔하고 누구나 갖는 기쁨이나 고민의 삶 아닌가. 뜨겁거나 차가운 매력적인 주제도 아니고 새롭거나 낯설음에 붙잡고 싶은 주제도 아니다. 생각해보니 요즘 나의 삶을 글로 남기지 않는 것은 누가 볼까 두려운 너무 깊은 고민도 없고, SNS에 담고픈 화려한 자랑질도 싫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결다리를 빼고 중심에 남는 건 그저 직장인과 엄마로써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이 지금의 나인데 이것을 쓰고 싶지 않다니. 그럼 그 고군분투를 기록하는 일이 의미 없게 느껴졌던 것일까 아니면 어디가 처음인지 모르기에 중간부터 갑자기 기록하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진 것일까?

초등학교 때부터 서른 초반까지 써오던 일기장이 이젠 없다. 글과 책을 접하는 시간은 지금이 제일 많은데 나의 글은 사라진 것이다. 언젠가는 글을 쓰는 시간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 토로의 시간을 통해 힐링이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지금의 난 나만을 위한 어떤 힐링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다. 물론 두 아이와 삶을 함께 하는 가운데 이 바쁘고 평범한 엄마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는 두 아이가 사랑스럽고 감사하다. 하지만 때로 나는 인어공주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기 위해 목소리를 버려야했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일과 가족을 챙기기 위해 나의 글을 마녀에게 팔아버린 것만 같다. 인어공주는 두 가지 삶을 모두 가질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목소리를 잃은 사람’이 되지만 결국 목소리 없는 사랑은 실패하고 만다. 요즘 같은 페미니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명작 동화 인어공주이지만 나에게 인어공주는 목소리 없는 사랑은 실패한다는 교훈을 준다. 나의 목소리를 갖고 사랑을 해야 내 사랑이 무엇인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어려운 것을 얻으려니 부지런도 떨어야 하고 비법도 전수받아야 할 판이다. 책을 뒤적이다가 이런 시를 보았다.

패자 부활전

이준식

나한테는 이번 시험이

누나한테는 이번 면접이

아빠한테는 이번 가계가

엄마한테는 이 모두가

『나한테 밀줄 한번 쳐 줄래』 중에서

동시인데 눈에 쏙 들어온 걸 보니 딱 나를 대변하는 엄마의 모습인가보다. 누군가 나의 스케줄표가 색색깔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스케줄이 그리 많냐고 물었는데 파랑은 내 스케줄이고 초록은 아들, 분홍은 딸, 연두는 남편의 스케줄이었다. 내 스케줄표에 온 식구의 일들을 기록하고 내가 돌볼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엄마한테 이 모두가 패자 부활전'이라는 말은 나의 스케줄표를 두고 하는 말이지 싶다. 어쩌다 엄마는 이 모든 패자 부활전에서 뛰는 선수가 되어 있는지 나를 멀리 두고 보니 좀 억울하기도 해서 남편에게 좀 나눠가지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다. 엄마는 매일 온 식구들 옆에서 레이스를 함께 뛰는 것처럼 혁혁거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나의 삶에 대해 화가 나거나 슬프지 않은 것을 보면 난 아직 내 목소리를 찾겠다고 마녀를 찾아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나에게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이 모두를 완벽하게 가지려고 하다 보면 무언가는 물거품이 될까 싶어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나를 표현하는 에세이에서부터 시작하고 싶다. 오늘은 모두의 패자부활전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부활전도 잊지 말아야겠다. 그것이 나의 이야기 에세이이길 바란다.

코로나19

조선영

코로나19가 터졌다.

메르스, 사스 때도 사람 적어 좋다며 아이들 돌을 끌고 여기저기 잘도 싸돌아다니던 나였는데... 코로나19는 뭔가 느낌부터 달라 우리집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게 만들었다.

그렇게 아이들 학교, 유치원도 못가는 상황들이 생기고, 심장 수술을 받으신 친정 엄마가 계시는 가정집에도 3개월이 넘도록 가보지 못하고 핸드폰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집콕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수화기 너머 친정아빠가 “대문 앞에 박스 들어가거라~”

허겁지겁 마스크를 쓰고 대문 앞에 나와 보니 친정 엄마아빠가 아이들에게 쓴 편지와 먹을거리가 가득 든 박스가 눈에 보이고 곧이어 옆으로 눈에 스쳐지나가는 낯익은 아빠 차...

마스크 쓴 얼굴이라도 좀 보자고 소리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나를 보며 뒤따라 나온 내 새끼들이 울고 백미러에 점점 작아지는 눈물 훔치시는 엄마...우리 엄마.....

그렇게 헤어져야 했던 그날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일

호문웅

아... 이거 괜히 시작했나 싶다. 글을 쓰기는커녕 무엇에 대하여 써야 할지부터 갈팡질팡이다. 최근 3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일에 대한 글쓰기. 이번에 등록한 글쓰기 클래스의 첫 과제다.

“이 작가는 너무했네. 핵심만 추리면 3분의 1도 안 될 분량을 같은 말을 하고 또 해서 책 한 권을 만들어냈네. 이런 책을 내는 출판사는 또 뭐여.”

“이 책 내용이 지난 번 그 책이랑 거의 같네. 이 사람 복불 장인인 듯. 같은 내용으로 몇 권이나 책을 쓸 셈인 거지?”

“이렇게 책을 써도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앞뒤고 안 맞고 이렇게 지루한데?”

내가 이 책 저 책 읽다가 이 짬 주워섬기고 있노라면 조용히 듣던 아내가 결국 한 마디 한다.

“투덜이씨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아니 맨날 뭐라 할 걸 왜 자꾸 보면서 그래?”

“음... 그러니까... 뭐라 하려면 일단 먼저 봐야 하거든.....”

내 말에 입꼬리를 올리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는 아내를 못 본 척 책에 눈길을 돌리곤 했다.

200장, 300장씩이나 되는 책을 낸 작가들에게 아무 말이나 해 댄 주제에 책 한 권은 고사하고 짧은 글쓰기 하나 제대로 시작 못하고 있다. 작가님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이다.

몇 줄 썼다가는, 아냐, 이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밝히기에는 너무 개인적인데...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다다다닥 연타한다. 또 다시 키보드를 두드려 보지만, 음... 이건 너무 흔한 거라 재미없지 않나...? 역시 달각대는 백스페이스 키.

쓸데없이 고지식해서 생각이 딱딱한데다가 게으름마져 당대의 탑 클래스. 일주일 동안 뒤통수 한 편에 과제의 부담감을 매달아 놓고 제출 마감 시간이 가까웠다. 학교 다닐 때 모처럼 공부한다고 책상

앞에 앉던 일이 생각난다.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을 견뎌가며 곳곳이 지쳐 온 카오스 상태의 책상. 쾌적한 공부 환경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해 책상을 치운다. 오호, 새로운 재능 발견? 나 의외로 정리라는 게 적성에 잘 맞는 거 아냐? 피식. 어쭙잖은 생각으로 책상 대신 머리를 어지럽히고 나면 느긋이 코스 요리 한 번 즐길 시간쯤은 지나갔다. 찾아 볼 수 없던 열과 성의를 정리에 퍼부었다는 것은 내 몸의 피곤 게이지 관리가 필요하게 됐다는 것. 공부에 쏟을 열정을 위해 일단 휴식이 필요해. 땀뿜땀. 빈둥빈둥. 마음에 불안감이 수박 덩어리만큼 차오를 즈음 굴적굴적 다시 책상 앞에 앉는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안 되겠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먼저 세워야겠어! 쯔, 이런 식으로 가다 결국 공부하는 나랑 안 맞아 하며 자기 성찰을 거듭하던 그 때의 생각 말이다.

아무렇게나 키보드를 두드린다고 글이 저절로 완성되어 나올 리는 만무하고, 다른 작가들은 글을 어떻게 썼나 다시 한 번 볼까. 이 책 저 책 꺼내들고 읽다 보면 또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간다. 그러다 아직 글 한 줄 못 썼다는 생각에 화들짝 놀라 키보드를 두드려보지만 갑자기 글이 툭 튀어나올 리는 만무하고, 참고할 만한 책을 좀 읽어볼까... 엇! 이렇게 무한 루프 속에 갇혀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저 밑에서 스멀스멀 올라온다.

아기가 배가 고파 울면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물린다. 아기는 한갓 목정껏 우는 수고로움만으로 그 야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생명 연장이라는 위업을 이루지 않나? 나는 손가락이라도 열심히 움직이는데 누가 젖 대신 글이라도 물려주었으면 싶다. 음... 순서가 틀렸나? 먼저 울고 나서 손가락을 움직였어야 하는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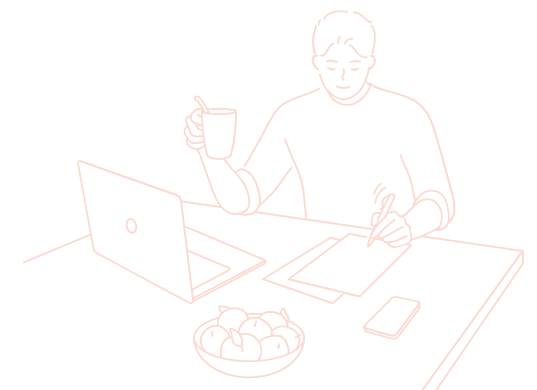
월급 받아서 밥도 사 먹고, 술도 사 마시려면 써서 보내야 했던 이메일 말고는 내 생각을 담는 글쓰기는 학교 다닐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나이 들어 고장 난 기억력이지만 그 때도 글을 한 번 쓰자면 어지간히도 시간이 걸렸던 게 떠오른다. 좋은 내용의 책을 보면 나도 조금이나마 이런 글을 써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왔다. 하지만 어쩌다 글을 조금 써보려 하는 순간 마다 그 지난한 어려움이 떠올라 손쉽게 빠져들 수 있는 편안함을 선택하고는 했다. 내 생각을 담는 글을 쓰지 않는 삶이라고 누가 나를 비난하겠는가? 읽고 싶은 글만 소비하는 안락함에 빠지는 것이 최악은 아니지 않은가?

글을 쓰라고 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했더니 입맛만 쓰다. 글이 안 써진다고 징징대는 유아적 행동으로만 종이 한 장을 채웠다. 장가만 일찍 갔으면 할아버지 소리도 들을 나이인데 처참한 문장력과 유치한 정신세계를 드러내자니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오른다. 아... 이거 괜히 시작했나.....

이쯤 되면 다들 이 글에 질릴 때가 됐으니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다. 2021년 7월에 수강하는 나의

1주차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첫 글쓰기 클래스. 4회에 걸친 이 시간을 내 삶의 한 사건으로 만들고 싶다. 글을 못 쓰겠다고 칭얼대는 아이의 글쓰기에서 우아하게 여유 부리는 멋진 어른의 글쓰기로 나아가는 배를 띄우는 것이다. 타이타닉 호처럼 크고 멋진 유람선은 아닐지라도 침몰하지 않고 항해를 마치는 운치 있는 작은 요트이면 좋겠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아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된다면 좋겠다.



02

나의 단짝



나의 작은 친구

김경미

나의 작은 친구 하늘이를 소개합니다.

요즘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최연소 친구

나이는 13개월인 아주 작은 친구입니다.

세상에 나왔을 때 3.72kg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무게
조리원에서든 똥똥 아기 top3 안에 들었던 묵직한 하늘이
병실에서 조리원으로 올라온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요란하게 울리는 화재경보음 소리에
엄마는 너무 놀라서 만약 정말 화재라면...
조그마한 너를 품에 안고서
비상계단으로 달려야해! 하면서
신생아실에 있는 널 찾아 뛰어갔었고
경보음이 잘못 울렸다는 선생님들 소리에
비로소 쿵쥔거리는 심장이 조용해졌어
그때 나는 알았지
이 세상에서 나보다 소중한 존재가 생겼다는 것을...

하늘이는 조리원에서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예쁜 아가에서
집에 오자마자 바뀐 환경에 적응을 못해

너무 많이 울었어

왜 우는지를 몰라 찢절때는 엄마아빠가

원망스럽다는 듯이 더 많이 울어버리는 너의 모습에

우린 더 진땀을 흘렸네

그리고 울 땀 꼭 숨이 넘어갈 듯 입술이 파래지게 울어서

요놈 보통 성격이 아닌가보다 했다

엄마아빠 품이 제일 따뜻하고 편하다는 듯이

안아줘야만 잠들었던 하늘이 때문에 애를 먹었지만

우리에게도 100일의 기적(?)이

아니, 살짝 늦은 150일의 기적이 왔어

그제서야 통잠이라는 것을 자주던 기특한 하늘이

이제 제법 갓난아기의 태를 벗고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 하늘이

앞이마가 푹 튀어나온 것은 엄말 닮았고

태어날 때부터 길쭉이 토실이인 것은 아빨 닮았네

잇몸을 뚫고 양증맞은 이가 6개나 올라왔고

요 양증맞은 이로 길쭉이 당근도 끊어먹고

달달한 고구마도 오물오물 먹고

모든 손가락 다 동원해서 입으로 가져가는 먹방 아기

놀 때도 엄마마마마마

줄릴 때도 엄마마마마

심심할 때도 엄마마마마

이렇게 격하게 엄마를 불러주니

황송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

정말 몸 둘새 없이 엄마는 하늘이의 뒤치다꺼리에 바쁘지만

너와의 만남이 엄마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아직은 작은 너를 돌보느라 엄마의 생활이 없지만
기꺼이 이 힘들음을 너의 미소 한 방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코로나19가 준 변화

김은오

“딸~ 이따 만나~(하트)”

여느 때처럼 분주한 업무로 정신없는 5시 무렵, 카톡 메시지 알람과 함께 부모님의 우리 회사 근처에서 산책하고 있다는 귀여운 인증사진이 도착한다.

6시 땡 치자마자 서둘러 퇴근하고 나간 회사 앞 갓길, 늘 차 창문 한쪽을 내리고 손 흔들며 반겨주는 엄마아빠가 기다리고 있다. 차에 타자마자 회사에서 보여주던 나의 어른의 모습은 off, 우리집 막내 모드는 on으로 전환한다.

한갑 막 지난 부모님과 회사에서 나를 인정받는 김대리의 귀여운 이중생활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집과 회사는 차로 40분. 작년 초 코로나가 시작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 딸이 걱정되었던 부모님은 아빠의 쉬는 날마다 나를 데리러 오셨다. 자영업을 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했던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회사 앞 마중(?)이 시작됐지만, 딸을 데리러 오는 길에 두 분이 미니 여행도 하고 산책도 하며 이제는 일상 속 즐거움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몇 번씩 데리러 오시며, 새로운 맛집 찾아 외식도 하고, 날이 좋을 땐 한적한 한강길 산책, 단 게 땡기는 날에는 드라이브 쓰루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서로 다이어트 걱정하며 칼로리 높은 음료를 짹짹 마시며 집으로 돌아왔다.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만족해하는 모습,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좋은 노래 함께 흥얼거리는 시간, 하루의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위로의 말을 나누는 것, 농담 따먹기부터 진지한 진로 이야기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했다.

코로나19로 회사의 야근 제한이 생기며 입사 후 8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 매일같이 야근으로 늦은 시간 귀가하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던 걸까 나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기도 했다. 때로는 야근으로 누리지 못한 나의 일상생활이 억울하기도 하다. 일을 통해 느끼는 보람과 성장도 분명 있지만 퇴근 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이렇게 큰 것이었다니. 부모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뿌듯했고, 나도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 사랑 듬뿍 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느끼며 행복했다.

코로나19로 슬픈 일도 너무나 많았지만,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일상의 소중함과 시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도 지금의 이 깨달음을 꼭 기억하며,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지키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나를 알아가는 요즘 나의 시간

김희성

나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남편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요즘 나는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작년까지 다니던 직장을 1년 쉬게 되면서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일의 끈으로부터 1년간의 시간적인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못 만나면 미치고 말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1년을 쉬면서도 꾸준히 직장동료를 찾아 만나고, 그동안 못 만났던 육아 중인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면서 1~2개월을 보냈다.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즐겁게 사소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푸념도 털어놓으면서 나름대로 힐링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문득, 내가 왜 나 자신을 위해 나와는 대화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요즘은 되도록 혼자서 내 몸도 보살피고 나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하고 있다. 18년간의 직장생활 속에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나 자신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고 넋 놓음의 시간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어쩌면 반려동물이나 반려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제로서는 빛나간 내 이야기로 채워질지도 모르겠다.

일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었다. 일하면서 진정한 보람을 찾는 것은 자신의 성취에 대한 의미부여일 수도 있고 어쩌면 꼭 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내적 합리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만, 항상 그와는 별개로 부가적인 다른 힘듦도 따라오게 되는 것 같다. 나에게 있어서도 해왔던 업무가 즐겁기도 했으나 때로는 무리가 따르기도 했었다. 1년 동안도 아예 일을 손에서 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의 업무와는 달리, 나만의 시간이 훨씬 더 보장되는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나를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계획하다가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나의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하고 있다.

혼자 있어 보면서 나는 생각보다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밖에 나가는 것과 사람을 만나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사람이 없으면 외로우리라 생각했었는데, 요즘 나는 집에서 혼자 있는데도 하나도 외롭지가 않고 심심하지가 않다. 도서관에 가서 여러 권의 책을 빌려와서 읽고, 너무도 해보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도 배워보고, 글쓰기까지 이렇게 도전해보고 있다. 누군가는 이런 것들은 직장 다니면서도 해봤을 테지만 나에게에는 이런 시간마저도 없었던 것 같다.

나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아직도 알아가는 중이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고 싶어서 혼자서 서촌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하철을 타고 서촌으로 가서 미술관에 들렀다. 전시를 보고 한적한 골목길 사진도 찍고 검색했던 맛집을 찾아 혼자서 점심도 사 먹어보고 카페에 들러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가져간 책도 읽었다. 막상 해보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뭔가 말할 수 없지만, 희열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혼자서 산행도 가보았다. 오전 산행 후 간단한 점심을 차에서 먹고 오후에는 근처 산책을 하다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심심하다는 생각도 약간 들긴 했지만, 조용하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참 좋았다.

지금 혼자 있으니, 지금의 내가 더 잘 보이고 내가 누구인지 더 집중하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집중하고 느껴본다. 빨리 가면서 못 보던 것들이 천천히 가면 아주 작은 것도 잘 보이게 되듯이. 나 스스로 천천히 느리게 보내는 요즘이다. 내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씬이란, 나에게 주는 달콤한 초코 우유인 것 같다. 내가 일하게 되는 그날에도 이런 달콤함을 스스로 줄 수 있기를.

울 엄마

박서연

엄마의 안과 검진 예약 시간은 오후 3시다. 엄마는 1시 무렵에 집을 나서시겠다고 한다. 연로하신 엄마가 버스정류장까지 가시는데 약 10분, 병원까지 가는 노선은 4개나 되지만 버스라는 게 꼭 급할 땐 안 온다. 그래도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10분 내외다. 버스로 6정거장이면 병원 건물 바로 건너편에서 내려준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해도 40분이면 충분하다. 참고로 *이버에서 대중교통으로 길 찾기를 하면 평균 20분 정도로 나온다.

그때부터 엄마와 나는 또 한 번의 설전이 오간다.

“뭐 하러 그렇게 빨리 나가. 이 시국에 대기실에 오래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나는 힘들어서 너처럼 빨리 못 걸어!”

“그래도 10분, 그래 15분으로 쳐도 50분이면 된다고.”

“버스가 나 기다리고 있냐?”

“가는 버스가 4대나 된다고!”

“안 올 땐 안 오더라. 막힐 수도 있고.”

“그 시간엔 별로 안 막혀!”

“일찍 가면 일찍 부를 수도 있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설전 끝에 1시간 전에 나가는 거로 얘기가 끝났지만, 결국 엄마는 1시간 반 전에 나가셨다. 병원뿐 아니라 모든 약속 앞에서 엄마는 늘 조바심을 내신다. 한겨울 지인과의 길거리 약속에서도 3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덜덜 떨고 계시기도 하고, 한여름 땀벌 아래 서 계시기도 한다.

가끔 엄마가 녹장을 부릴 때가 있으신데, 그건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 가신다는 뜻이다. 매사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화법을 쓰는 엄마의 의사 표현법이다.

“우유가 없네.”라는 건 단순히 우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우유가 없으니 사 오라는 뜻이다. “요즘 팔빙수가 비싸냐?” 이 말은 팔빙수를 드시고 싶다는 표현이고, “저 칼국수 집 부평에 있대.” 역시 가보고 싶으시다는 뜻이다.

비슷한 시간을 지나온 엄마 연배의 우리네 엄마들이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엄마는 검양과 사양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래서 음식을 권하거나 선물을 받으면 일단 괜찮다고 하신다.

늘 그렇듯 그날도 엄마는 내가 권한 맛난 무언가를 사양하셨다. 오래전 일이라 상황만 기억나고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엄마는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난 두 번 권하지도 않고, 먹어 버렸다.

“어쩌면 계집애가 그렇게 차니? 한 번 더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괜찮지만, 다른 데 가서는 그러지 마.”
 “엄마 나는 엄마를 잘 아니까, 엄마 딸이니깐 두 번 권할 수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은 안 그래. 앞으로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 사양하지 말고 받아. 고맙다고 말하고, 맛나게 먹고, 쓰면 되는 거야. 나중에 서운하다 하지 말고. 어떤 자식이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선 대가리만 제사상에 올렸잖아.”

타고난 성품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는 사양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 적어도 나와 관계에서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신다. “줄 때 얼른 먹어야지.”

사실 나도 엄마 딸이니깐,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 사양하는 게 미덕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꼭 미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개의 사람은 자신이 배운 호의를 사양하는 것보다, 감사히 받고 흠뻑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뼈아프게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훨씬 오래 사셨지만,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한 내 입장에서 엄마가 당당하고 건강하게 호의를 주고받는 법을 공유하고 싶었음을 엄마는 아실까?

함께 산 세월 탓에 문득 엄마처럼 행동하는 나를 보며 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엄마와 나는 다른 면이 더 많다. 독립적이고, 혼자 있는 걸 선호하는 나는 의존적인 성향의 엄마가 답답할 때가 있다. 그래서 상처 주는 말로 서로 할퀴기도 한다. 우리 집뿐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이 그런 관계일지도 모르겠다. 가깝고 편하기에 상처 주고, 특별한 사과의 말 없이도 화해할 수 있는 사이임을

알기에 더 소홀할 수 있는 관계.

솔직히 아직도 나는 매끄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감 있게 내 의견을 말하는데 서툴다. 자신감 넘치고 따스한 사람들을 보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연습 중이다. 그 관계 중에는 엄마와의 관계도 포함되어있다.

요즘, 엄마의 뒤 어깨가 작아 보인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심정을 나는 가능할 수 없다. 게다가 얼마 전 이사를 해서 모든 게 낯선 환경이라 더 힘들어 보이신다. 바뀐 환경 탓인지 나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졌지만, 그래도 혼자 해보시려고 애쓰시며 내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 그 또한 안쓰럽다. 내가 아직 겪어보지 않은 시간을 지나오신 엄마 연세에서의 신체 변화 역시 짐작할 수 없다. 다만 삼십 년 전 나와 지금의 내가 아주 다르듯 나보다 삼십 년을 더 산 엄마가 일상이 버거울 것을 알기에, 가능한 엄마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한다.

엄마!!!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함께 해요~~

그런데 엄마! 엄마 연세에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해요~~~



하이텐션 그녀

설지은

“언니, 보고 싶었어~”

현관문 밖 목소리부터 내 동생 영은이다. 대전에 있는 친정에 자주 못 가는 대신, 주말에 조카 승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끔 놀러온다.

나는 네 살 예진이 손잡고 예윤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영은이는 조카 승현이를 아기띠로 안고 집 앞 마트로 장을 보러 갔다. 잠이 오는지 칭얼대는 예윤이를 겨우 달래고 자기도 안아달라고 떼쓰는 예진이에게 얼른 간식을 쥐어준다. 마트 가기도 전에 준비하다 진이 다 빠진다. 두 아이 챙기랴 저녁 반찬 고르랴 정신없는 틈에 동생이 안 보인다. 영은이는 그새 모르는 아기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낯선 사람과 몇 마디 나누다 샐룩이는 표정으로 오던 동생은,

“저기 아기 엄마 말이야. 애기 몇 개월인지 물어보고 대화 좀 하려고 했더니 반응이 영 시큰둥하네.”

“야, 너 같으면 모르는 사람이 말 거는데 좋겠냐?”

“그런가?”

아무튼 못 말리는 내 동생이다. 유모차에 싣고도 모자라 남은 손 가득 식재료를 들고 겨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스윽’ 열리는 순간 무뚝뚝한 표정의 아저씨가 애기들을 보시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내 동생!

“애들아~ 아저씨가 ‘아유 예쁘다.’ 하시네~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저씨의 감출 수 없는 당혹스러움이란...

내 동생의 미친 친화력이란 정말. 창피함은 언제나 나의 몫이던가...

오랜만에 언니 집에 와서 감칠맛 부족한 불고기도, 좀 엉뚱한 시금치 무침도 ‘맛있다. 맛있다.’ 먹는 내 동생. 빵순이 동생을 위해 나름 유명한 동네 빵집에서 사온 빵을 저녁 먹고 또 폭풍 흡입하던 영은이는 “언니~ 나이 들면 식욕도 준다던데, 난 도대체 언제 입맛이 없어지는 거냐고?”

“소화 잘 될 때가 좋은 거야!”

“그치? 난 언니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둥근 얼굴, 네모진 갈색 테 안경, 발그레한 두 볼, 어깨 아래 긴 생머리 내 동생!

그런 동생이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마흔이 넘어

“언니, 나 화장하고 다닐까?”

“갑자기 왜? 요즘 마스크 써서 보이지도 않는데, 뭘”

“회사 후배 한 명이 계량한복을 입고 왔는데 참 예뻐서

‘진영씨는 입는 옷마다 어쩔 이렇게 예쁘고 잘 어울려?’ 칭찬했더니

‘부장님 저 20대예요. 부장님도 제 나이 때는 예뻐셨잖아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묘하게 기분 나쁘더라?

나 이제 늙었나 봐 언니!!”

“누가 널 40대로 보냐? 너 아직도 20대 같아.”

“역시 우리 언니 밖에 없어. 언니 덕분에 자존감 팍팍 올라간다.”

오늘도 퇴근 길 동생에게 전화를 건다.

“언니~~!!”

하루라도 안 들으면 서운한 목소리다.

나를 변화시킨 나의 단짝

이수현

언젠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글로 꼭 남기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 나의 세계관을 변화하게 하고 새로운 삶에 진입하는 장벽을 자연스럽게 낮추어준 사람, 나에게 다른 삶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 사람, 바로 나의 딸 은후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에 진입이란 바로 엄마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라.

은후는 나의 둘째이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사실 풋풋 웃음이 나고 누가 딸 아이에 대해 묻기라도 하면 입에서 줄줄줄 그 아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쏟아져 나온다. 세상 모든 엄마가 그렇겠지만, 아이란 삶에 큰 변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가져다준다. 그 삶에 적응하기 어려워 많은 엄마들이 때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니 세계관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삶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사실 엄마가 된다는 일은 세상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낯설음을 버려야 하는 일이며 나를 바꿔야 하는 가장 치열한 일이기도 했다. 첫 아이의 임신은 한창 일에 빠져있던 나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었다. 아이가 결혼하자마자 찾아올 줄은 몰랐기에 임신 중 누워있으라는 진단을 받고서도 뱃속의 아이 생각보다 일 생각을 더 했던 것 같고, 아이가 태어나서도 하루 빨리 복직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컸다. 아니라고 우겨도 어쩔 수 없이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커리어를 지키는 것은 중요해'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큰 아이를 시택에 맡기고 출근을 해서 직장에서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성취하는 기쁨을 느끼긴 했지만, 또 아이가 시택에 있어 보지 못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 6개월 만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렇지만 육아와 일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고 보낸 시간이 3년이다. 그렇게 3년 만에 나의 둘째 아이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큰 아이가 외로워 보여 낯기로 결심한 둘째 아이였지만, 유산 끝에 어렵게 찾아온 둘째라서인지 첫째 때 육아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자책에서인지 첫째 때는 가지지 못했던 육아에 대한 승부욕과 결의에 찼다. 그리고 휴식에 돌입, 마음을 독하게 먹고 첫째 때 실패한 모유수유를 했다. 마음먹고 육아를 해보겠다고

달려든 것이다. 젖이 돌지 않을까봐 새벽에 일어나서 유축을 하고 잠을 깨우려고 흡소핑을 보았다. 매일 현관문에 쌓여있는 택배 상자를 보며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새벽 유축은 흡소핑 재방송이 아니면 지속하기 어려웠다. 어느새 아기 은후는 내가 웃으면 따라 웃었고 큰 아이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때에는 마룻바닥에 눕혀놓아도 새근새근 잘 자고 기저귀를 갈아줄 때는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는 놀라운 아이였다. 오빠가 하는 일을 유심히 바라보고 엄마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고 나의 육아 안에서 아이는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육아는 힘들고 나의 커리어를 방해하는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육아에만 집중하고 육아에서 기쁨을 느꼈으며 나의 직업 이외에 베이킹과 요리를 배워서 가족을 위해 준비하고 집에 손님을 초대해 음식을 차려주는 일을 사랑하고 있었다. 집안일과 장보기는 남편이나 다른 누군가가 해주길 바랐던 내 인생에서 나의 이런 모습을 찾을 줄이야.

물론 추억은 좋은 일들만 기억하게 하지만, 둘째가 네 살 정도 될 때까지는 가정에서 전쟁과 평화가 서로를 밀어내고자 안달을 하던 때라고 해야 더 어울리긴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의 은후는 이런 새로운 '엄마의 자아'를 내 안에서 끌어내게 해준 아이다. 그림책을 사랑하는 나는 은후와 앉아서 그림책을 읽으며 이야기 나눌 때가 많다. 큰 아이와 숫자 놀이를 했다면 은후와는 그림책을 읽으며 대화가 통했다. 특히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와 한쪽 발의 양말만 벗어던지고 다리를 쭉 뻗고 앉아 그림책을 심각하게 볼 때는 저 아이가 나와 같은 영혼을 가졌구나 싶기도 했다. 일곱 살 은후가 '언제나 네 곁에'라는 책을 나와 함께 읽을 때다. 언제나 곁에 있겠다고 하고서는 곁을 떠난 엄마곁에 게 툭툭거리며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는 아기곰이 나오는데 글과 달리 그림에서는 언제나 엄마곁에 아기곰을 보이지 않게 돕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림책을 보면서 은후와 나는 함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언제나 너의 곁에 있고 싶은 엄마곰과 툭툭대지만 늘 엄마곰이 그리운 아기곰이 우리들 같다고 해야 할까. 아이는 엄마의 떠남이라는 말이 그저 슬펐을 수도 있겠지만 어린 녀석이 책 읽고 평평 우니 뭘 안다고 그러나 싶었다. '백 만 번 산 고양이'를 읽고 나서는 할머니가 짝꿍을 만나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쉽게 말하니 '고양이는 자기만 사랑하다가 처음으로 다른 누구를 사랑하게 된거예요. 그래서 그 하얀 고양이가 죽자 울고 또 울다가 자기도 죽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가끔 나는 은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영혼이 울린다고 느낄 때가 많다. 엄마와 딸을 넘어서 어느 주파수가 강렬하게 일치하는 느낌일랄까.

다시 엄마로서의 삶으로 돌아가자. 엄마의 자아란 아이를 낳는다고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모성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겠지만 엄마로서의 자아, 세계관은 아이가 자라면서 함께

자라는 것이었다. 첫 아이 때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다면 둘째를 낳으면서 이제 나도 엄마로서 성장하고 튼튼한 뿌리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물들이 새끼를 보듬고 사랑할 때 얼굴을 새끼에게 비비며 표현하는 것을 보았는데 언젠가부터 그 표현이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사랑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이나 손으로가 아니라 내 얼굴이 본능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닿아 언제나 네 곁에 있음을 보이는 것, 아무런 꾸밈없이 부모의 본능 그대로의 자녀를 향한 사랑인 것 같다. 엄마로서의 삶이 내 삶으로 자리 잡은 그 성장에 은후가 있었다. 신이 나에게 이젠 괴로워 말고 아이와 함께 하는 그 세상의 참 아름다운 맛을 보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아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참 아름다운데 희와 락만 있는 것은 아니고 노와 애가 있음을 알기에 자신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엄마로서의 삶의 가치를 꺼안고 누리고 있는 중이다.



나의 단짝 놀부 신랑

조선영

28살, 12월 마지막 날. 피렌체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 갈 때마다 꼭 들르는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안에 묘지가 있는 작은 성당.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고 종교가 없지만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저에게 단 한 번 그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신다면 그 사람 손 절대 놓지 않을게요. 만약에 아니라면 죽을 때까지 마주치지 않게 해 주세요.”

길치인 나는 언제나 시작점이 기차역이다.

기차역으로 돌아와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에게 곧장 걸어오는 한 사람...

한국에서 그것도 둘 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한 번을 마주쳐지지 않던 사람.

심지어 4년 전 내가 떠 준 목도리를 하고 나에게 걸어온다.

눈에서 멀어지고 마음으로 그리도 간절했던 그 사람!

그 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 놓지 못하고 지금을 산다.

새하얀 피부에 새초롬한 8살의 그를 기억한다.

국민학교 조희시간 항상 반장이라 맨 앞이기도 했지만 작은 키에 애늬은이 성격을 가진 그를 자꾸만

괴롭히고 싶었던 나를 기억한다.

11살 학교 연극하던 날 내 신랑 놀부였던 그를 기억한다.

함께 집에 돌아오며 먹었던 자두맛 주스와 노을진 횡단보도에서 잘 가라며 손 흔들던 기억...

이제는 흰머리가 제법 눈에 띄는 그를 보며 나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 이렇게 흰 머리도 쌓이는구나 싶었는데 얼마 전 술에 취해 “네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나면 나는 죄책감이 들어.” 라는 말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시려온다.

하루에 한번은 꼭 날 웃게 해주겠다고 결혼식 때 한 약속을 아직도 잘 지켜주는 내 단짝.

사랑한다는 말로는 우리 사이에 다 메워지지 않는 부족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읽기를 즐기는 걸까, 사기를 즐기는 걸까?

호문웅

반백년을 살면서 요새처럼 집 여기저기에 책을 던져두고 살기는 처음이다. 학교 다닐 때도 과제를 위한 책이 아니면 찾지 않던 도서관을 한 달이면 두 번이나 간다. 내가 가는 곳은 신간 코너. 굳이 무언가를 정해놓고 찾지 않고 갓 나온 새 책 중에서 무엇이든 흥미를 끄는 책을 고른다.

학생이라 볼릴 때는 종로의 대형 서점을 좋아했다. 종각역을 사이에 두고 종로서적과 교보문고가 있었으려다. 종로서적이든 교보문고든 그 안으로 들어서면 풍겨오는 가을 향기 같은 새 종이 냄새가 편안하게 느껴졌다. 높다란 책꽂이에 줄 맞춰 뽁뽁이 늘어서 있는 책들은 미술관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예술 작품으로 보였다. 가지각색으로 디자인된 책등. 색깔도 다르고, 글씨의 모양도 다르다. 글씨만 크게 들어간 것이 있는가 하면, 표지에서 이어진 그림이 가득한 것도 있다. 각기 다른 책등 위의 색과 글씨와 그림이 어우러져 어느 누구의 의지도 표현하지 않는 거대한 월 아트가 되어 있다.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에서 의미를 읽지 못하면 예술에 무지한 내가 부끄러워지지만, 읽어내야 할 의미가 없는 작품은 보고 감탄하면 그만이다. 나의 부족함에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냄새로 편안해지고, 눈에 들어오는 서가의 아름다움으로 즐거운 공간. 종로의 대형 서점은 내게 그런 영역이었다.

눈으로 책들을 훑다가 그 안이 궁금해지는 책을 꺼내든다. 아무 곳이나 펼쳐들고 보고 싶은 만큼 보다가 도로 꽂아 둔다. 느릿느릿 다른 서가로 발걸음을 옮겨 화려한 색상의 책등에 끌려 책을 뽑는다. 책장을 파르르 넘겨보다가 다시 넣어둔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도 아무도 내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여러 번 집었다 내려놓았다를 반복해도 뒤통수에 따가운 눈총 세례를 퍼붓는 옷가게 누나의 시선 따위는 없다. 때 탄다고 뭐라 하는 점원 분 없는 대형 서점님 사랑해요!

요즈음은 작은 서점에도 서가 사이에 잠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쉴 수 있는 의자가 있는 곳이 적지 않지만, 그 시절 서점들의 대장 격이었던 종로의 대형 서점들조차 그런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눈을 돌리면 책을 들고 꾸그려 앉아 있는 사람, 아예 바닥에 엉덩이를 붙인 사람들 투성이었다. 다리가 아프면 그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 곳이 좋았다.

그렇게 그 공간을 즐기고 있노라면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있었고, 떠나기 아쉬운 마음을 그곳에 두고, 대신, 꼬리치던 수많은 책들 중에서 한두 권을 데려오곤 했었다. 책을 데려오는 곳은 서점뿐만이 아니었다. 친구 집에 놀러가거나 오랜만에 들르는 친척집에서도 그 집의 책을 구경하는 것이 좋았다. 집집마다의 컬렉션이 모두 다르다. 사람이 다르면 책꽂이의 책도 다르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책을 발견하면 어떻게든 얻어내거나 빌려오곤 했다. 그야말로 책 강도였지만 죄의식 따위는 없었다. 아무래도 나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나보다. 국회의원 되기는 틀렸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고부터는 점점 책을 읽지 않게 되었다. 대형 서점은커녕 가까운 동네 서점조차 들르는 일이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면 다시 새벽에야 집에 돌아오는 일이 잦았고, 주말에도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시간도 체력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눈으로 활자를 쫓는 행위는 즐거움보다 피곤함을 주었다. 흐느적거리는 몸을 침대에 누이고, 저절로 흘러가는 영상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배우들의 대사가 귓속에서 아스라해질 때쯤 스스로 잠드는 그 편을 선택했었다. 하지만 책을 읽지 않는 생활은 아쉬움을 낳았고, 아쉬움은 읽지도 않는 책을 계속 사들여 쥐꼬리 굵여 수탈이라는 만행을 낳았다. 여전히 서점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즈음은 이미 인터넷 서점에서 매우 쉽게 책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었다. 종이의 질감을 손가락으로 느끼는 대신 딸깍대는 마우스의 감촉만으로 사는 책은 감성도 감탄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여전히 늘어만 가고 있었다.

일하는 시간 말고는 연애했 시간도 없을 것 같았지만 신기하게도 결혼이라는 사건은 내게도 찾아왔다. 그동안 모아온 책들만으로 신혼집의 방 하나를 가득 채웠다. 방 하나를 메웠다 한들 나의 오래된 책들은 돈으로 치면 킬로그램에 얼마 하는 폐지일 뿐이었지만, 무게만은 금고에 버금가는 책도 있던 탓에 책꽂이 바닥을 휘게 해 책장마저 폐물을 만드는 전투력을 자랑했다. 책장이야 휘건 말건 결혼 후에도 책은 계속 늘어 가는데 느는 것은 책뿐이 아니었다. 아이가 하나 늘고, 또 하나 늘어 둘이 되었다. 아이들의 공간이 늘어가면서 더욱 더 좁아지는 집 탓에 나의 '무독 서적' 구매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고, 현실 자각 타임을 맞았다.

더 이상 방 하나를 내 책으로만 가득 채워 놓을 수는 없었다.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읽지도 않고 쌓여 있는 내 책이 아니었다. 쌓여있는 내 책 때문에 쌓인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의무가 내게는

있었다. 비교적 최근 책들을 작가별로 장르별로 여러 권을 묶어서 책 반 권도 못 살 가격에 당근 마켓에 내놓았다. 고물상에 폐지로 팔면 책이었다는 기억은 모두 잊은 채 누런 재생지로 재탄생할 테니 그나마 누군가 간직하고 읽어주기를 바랐다. 우리 집 책장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집 책장에는 꽃혀 있었으면 했다. 그렇게 대부분의 책을 처분했고 이제는 작은 방 한 쪽 벽면에서만 내 책을 찾아볼 수 있다.

나는 과자를 잘 먹지 않는다. 과자를 맛있게 먹기는 하지만 일부러 찾아서 먹는 일은 드물다. 그래도 마트에 가면 먹고 싶은 과자를 이것저것 사온다. 그러나 먹고 싶었다는 마음 뿐 그 과자들은 결국 전부 아들들의 입 속으로 사라지기 마련이다. 나는 가지기를 원했을 뿐 먹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보다. 책들도 그렇다. 가지기를 원했을 뿐 읽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삼년 전에 퇴직을 하고 이제껏 없었던 자유시간의 향연을 만끽하고 있다. 금전의 제약은 심해졌지만 대신 시간의 제약이 없어졌다. 줄어든 수입을 쿨 하게 인정하기만 하면 몸도 마음도 평온하니 더 이상 가지기만 하는 책에서 위안 받을 일이 없다. 이제는 책을 가지려 하지 않고 읽는다. 침대 머리맡에, 책상 한 편에, 소파 옆에, 식탁 위에 책이나 패드가 굴러다닌다. 마음 가는대로 손길 가는대로 책을 읽는다. 현실 공간을 메워가는 종이책을 사기보다 읽은 전자책을 늘려간다. 책꽂이에 책이 늘어가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 목록이 늘어가는 것에 즐거워한다. 대형 서점에 가는 즐거움은 여전히 추억 속에 묻힌 채이지만 책을 책답게 읽는 것만으로 나는 지금 기쁘다.

그런데 나는 왜 여전히 과자는 사기만 하고 먹지는 않는 것일까? '전자 과자'도 '과자 도서관'도 있을 리가 없으니 이 병만은 불치인 채로 남을지도 모르겠다.

03

여름



나의 첫 직장 이야기

김경미

처음에는 첫 직장에서 받았던 여름휴가가 생각이 났다.

입사한지 몇 달 되지 않아서 받았던 꿀 같은 3일간의 휴가.

그래서 그 해 여름, 무더운 8월에 떠났던 전주여행을 소상히 적어보려고 앉았으나 첫 사회인이 된

후 내가 겪은 경험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여행 이야기는 뒷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제목을 ‘나의 첫 여름휴가’가 아닌 ‘나의 첫 직장 이야기’로 정하고 글을 써보고자 한다.

나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전공을 살려 온 좋게 바로 그 해 봄에 취업을 하였다.

대학교 4학년 때는 일 년 내내, “졸업 후 내가 과연 직장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로 지냈던 것 같다. 가고 싶은 기관들의 문턱은 나의 스펙과 나의 역량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내가 대학생 때 팽팽 놀았나? 또 그건 아니었다. 전공학점 신경 쓰라, 봉사활동 점수 채우느라, 동아리 활동도 참여하고 졸업에 필요한 영어점수까지...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지만, 마치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는 항아리 마냥 늘 모자란 듯한 나의 모습에 자신감이 없었다.

당시에 교수님의 추천으로 처음으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본 기관이 있었는데 나와 같이 추천받은 후배가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이 컸던지라 의기소침해 있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제출한 기관이 있었는데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나의 대답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 날 오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고서 기뻐서 눈물이 날 뻔 했다. 다가오는 어버이날에 들려줄 수 있는 정말 기쁜 소식! 드디어 나도 사회초년생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날의 합격소식은 6명의 면접자들 중에서 한 명으로 뽑혔다는 생각에 없던 자신감도 생기게 했다.

열정 있어(?) 보였던 면접 날의 나의 모습과는 달리 첫 출근 이후부터 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입사 일주일 동안은 당장 그 달에 진행해야 하는 큰 나들이 행사에 중압감을 받으며, 빼곡히 적혀지는 캘린더 일정에 정신이 없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아침 회의 시간에는 베테랑 선배들의 업무 보고를 옆에서 들으며 ‘어쩔 멀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업무를 이야기 하고, 때때로 피드백을 받으며 일들을 수정하는 거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러움과 조바심이 있었다.

아침마다 햇살이 가득히 들어오는 회의실 속에서, 때때로 웃음이 있고, 때론 긴장감이 있는 그 공간 속에서 가장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 뿐이었다. 아무도 나에게 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에게 큰 기대를 하는 사람이 없었겠지만 나는 잘하고 싶었고 그 낮은 기대에도 보란 듯이 해내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바람과는 달리 입사 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야 했다.

돌아보면 대학을 막 졸업한 신규직원이 하기에는 벅찬 행사들이 많았고 업무의 가지 수도 많아 야근에 주말출근까지 하다보니 체력적으로도 지쳤다. 그리고 초반에 업무 적응하느라 바빠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일들이 시간이 흐르자 약속이나 한 듯 시한폭탄처럼 이곳저곳에서 터졌다. 그리고 가끔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뒤통수가 저릿하게 아팠다.

나의 일을 제대로 못해서 주변에 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힘들어 보인다는 주변의 말에 ‘관찮다.’ 라는 말을 했었다. 왜냐하면 다들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나만 힘들다고 유난을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의 힘들음을 왜 유난이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조금 뻔뻔해지고 싶다.

그리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솔직해지고 싶다.

“경험이 부족해서 이 일이 어렵네요. 업무를 조금 조정해주시면 어떨까요?”

늘 턱 밑까지 차올랐던 말이지만, 내가 어렵다고 내뱉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행여나 피해를 입을까봐 그리고 그것도 감당 못하냐고 평가 받는게 두려워서...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으로 꺼내지 못했다.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줬던 동료들에게 고맙다고는 매번 말했지만, 뭔가 나 스스로 쉬쉬하는 고마움이었다. 많이 고마웠지만 도움을 받아야하는 나의 처지가 싫었고 이번에도 완벽하게 나 스스로 해내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있었다.

하지만 직장생활에 있어 업무를 감당할 때 혼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몇이나 될까? 주변 사람들과의 협조가 필요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정도네요.”

나를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웠다. 그래서 말도 꺼내지 않았다. 하하. 최선을 다한 나를 인정해주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의 쿨한 마인드였다면 좀 더 회사생활이 편했을 텐데 말이다.

사실 나는 그 곳을 좋아했고, 함께 일한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배우고 싶은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엔 지쳐서 2년 만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다.

전철역에 내려서 회사까지 갈 때에 걸어가던 작은 오솔길이 있었는데, 때론 바쁘게 때론 힘겹게 때로는 가뿐하게 걸었던 추억의 오솔길이다.

퇴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추운 겨울 새하얀 눈이 쌓인 오솔길을 걷는데 눈물이 눈발으로 똑똑 떨어졌다. 멈추지가 않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 후 나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고, 2년 남짓한 그때의 시간을 나의 기억 한 칸에 묻어두고 애써 꺼내지 않으려고 했다.

이 글을 써보면서 그때의 나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는데 언젠가 꼭 한번은 정리해야했던 나의 시간들이었나 보다.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 꼭 내가 첫 직장생활에 실패했다는 기억으로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의 나에게 진심을 다해서 참 잘했고, 훌륭했다고 박수쳐주고 싶다.

우이도 없는
우이도 여행

김은오

지난 봄, 신비로운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표류기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더 어울릴 정도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여행이었다. “여행 어땠어?”라고 누군가 물어오면, “지금 시간 있어? 들을 여유 충분해?”를 먼저 확인해야 할 정도로 상상 이상의 경험이 담겨있는 섬 여행. 여름이 되니, 그 섬의 여름의 풍경이 너무나 궁금하고 그리워진다.

목포에서 배로 4시간. 음식점도 슈퍼도 없어 민박집에서 차려주는 밥을 먹어야 한다는 섬. 바람길로 생긴 사막이 해변과 해변 사이에 신비롭게 자리하고 있는 섬. 오후에 들어가는 배, 새벽에 나오는 배가 있어 무조건 하루 이상 잘 수밖에 없다는 섬 우이도.

목포 여행에서 만난 친구가 들려준, ‘우연히 그 섬에 갔다가 한국인도 잘 모르는 외딴 섬 해변에 외국인 커플이 여유롭게 쉬고 있는 풍경이 생경하지만 참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를 따라 상상 속 풍경에 홀린 듯 그 섬에 가기로 했다.

섬 여행은 이전의 여행들과는 전혀 다른 재질의 것이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었으며 우연과 우연이 만나 새로운 인연과 즐거움을 주었다.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미리보고 결정하던, 리뷰와 평점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심지어 로드뷰까지 함께하는 여행의 기술은 무용한 곳이었다. 닿을 수 없으면 더 갖고 싶고 모르면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까. 호기심 가득 품고 여행을 시작했다.

“배가 뜬다구요? 근데 도착을 안한다구요?”

섬 여행 전날, 여행 메이트와 목포에 도착했다. (그리운 목포. 보고싶은 목포)

여행계획 시작부터 막막할 줄 알았으나, 게스트 하우스 사장님이 마침 우이도에서 문화 프로젝트를

3 주차 여름

하셨던 터라 전화 한 통으로 민박집이 결정되었고, 배 승선권은 인터넷 예매는 불가능했지만 목포 구시가지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목포항에 가서 미리 선박회사 이름을 확인하고, 출발 당일 배 뜨기 1 시간 전에 현장발권 가능하다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섬 여행 당일, 오늘 섬에서 우이도 못들어올거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확인 해보라고 하셨다. 목포항에 전화해 “오늘 섬사랑 6호 배 뜨나요?” 라고 확인하니, “네 오늘 배 떠요 ~” 라는 답변을 들었고, 배가 출항한다고 하니 안도하는 마음에 더 신나졌다. 섬에 맥주 없을 걱정엔 편의점에서 맥주와 간식을 사고, 갑판에서 먹을 맛집 톳김밥을 사서 룰루랄라 여객터미널 매표소가 가, 당당하고 해맑게 말했다. “우이도 가는 배 표주세요~” 돌아오는 대답은 “오늘 배 우이도 안가요~” 였다. 두둥.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까 전화로 배 간다고 확인 다 했는데요??ㅠ”

“아, 배는 뜨는데 우이도는 안가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도초도, 비금도 까지만 가요.”

“네에? 우이도 가는 배인데 우이도를 안간다고요?”

“네, 어떻게 하실거예요?”

두두둥. 생각해보지도 못한 변수였다. 우리를 여행으로 이끈 목포 친구,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도 이런 이야기 없었는데! 그래도 뭐..... 뭐든 재미있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너무 신난다~!! 여행 메이트 와 30초 고민했을까, 우리는 우이도 못가는 우이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배에서 김밥 먹으며 새로운 섬 도초도, 비금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우리가 걱정되었는지, 매표소 직원은 선원 전화번호를 주었고 우리는 여객터미널 안을 애타게 돌아다니며 도초/비금/우이도 지도 책자를 얻었다.

“바람이 강한 날은 배가 중간(도초도)에서 하룻밤 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우이도로 출발했다가 목 포로 돌아오는 뱃길이니, 꼭 선원 분한테 전화해서 배 확인하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 이후로, 우이도에 도착하기 전까지 선원님과 아침 점심 저녁 통화했다고 한다...) 선원님 안녕하세요?~ 저 또 그때 그 사람인데요~)

“우이도 없는 우이도 여행”

갑판에서 거친 봄바람 맞으며 먹은 톳김밥이 너무나 맛있었다. 톳이 가득 들어있어 겨자장에 찍어 먹으면 오독오독 고소 알싸한 맛이 좋았고, 외딴 섬으로 미지의 여행을 떠나는 설렘에 바람도 좋고 햇빛 반짝 비치는 바다도 너무 예뻐다.

목포 여행에서 들었던 (우이도부터 흑산도-오키나와-필리핀을 표류하고 돌아왔다는) 우이도 살았다는 홍여장수 문순득 이야기 때문인지 정처 없음도 마냥 즐겁고, 그냥 다 낭만적이고 아름다웠다.

순식간에 김밥을 처리한 후 실내로 들어가 배 깔고 누워 도초도 여행 검색을 시작했지만 역시나 정보 부족으로 헤매고 있을 때 목포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께 연락이 왔고, 우리의 표류사항을 알리니 전화 번호를 하나 보내주셨다. 공식 숙소는 아니지만 원래 연수 용도로 쓰이는 연구소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휴관중이라며, 연구소 대표님에게 연락을 취해 하루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덕분에 우리는 우이도 없는 우이도 여행 첫째 날을 택시투어로 도초도와 비금도의 명소를 모두 둘러본 후 도초도에 있는 연구소에서 대표님 부부의 따뜻한 환영과 귀한 식사까지 대접받고, 별보기, 다도 프로그램, 연구소 구경까지 대표님 부부와 함께하며 보냈다. 인기척 거의 없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보통의 여행에서는 상상 못할 경험과 감사한 인연에 감동하며 일주일 같은 하루를 마무리 했다.

문득 지금 내가 도대체 어디에 왜 와있는건지 현타가 오는 시점에는 여행 메이트와 눈 마주치며 허허허허허얼 어이없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며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 반, 설렘 반, 행복 많은 여행이라 결론지었다.

다음 날 아침, 선원님과의 모닝 통화로 드디어 오늘 1시에는 배가 우이도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다시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배 타러 가기 전 여유시간동안 자전거 타고(*사연 많지만 종라) 맑은 아침 빛 반짝이는 시골 마을로 나가 아침도 먹고 토끼풀 화관도 만들고 잔디깎이 체험도 한 후 대표님 부부와 뜨거운 인사를 나누고 항구로 향했다.

항구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리에서도 이제는 매우 익숙해진 섬사랑 6호 배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고, 멀리 선원님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드디어 입도한다!’는 감격 가득한 마음으로 매표소에 계신 아저씨께 “우이도 2명이요”를 외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오늘 우이도 못 들어갈텐다~?” 였다.....!

두둥. “네? 저희가 두시간 전에 다 확인했는데요? 저희 어제 못들어가서 도초도에서 잤어요ㅠ”

“오늘 오후에 바람 세져서 못 갈텐디? 선원 전화번호 줄테니 전화해봐요잉?”

“전화번호 알아요ㅠ 어차피 여기 앞에 배 있으니깐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그래요~ 나 이제 퇴근하니깐 (잉? 1시인데?) 여기 문 닫혀있으면 저기 저 번호로 연락하쇼잉~ 이따 숙소 필요할 수 있을께 필요하면 연락하쇼잉~”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섬 분들은 거의 투잡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배오는 시간에는 매표소 직원이었다가, 오후에는 숙소 사장님이었다가, 어떤 분은 어부와 이장님, 슈퍼주인 등등도 같이 하시고, 때에 따라 복장(매표소 직원 조끼같이)도 바뀌는 분들도 있어서 귀여운 발견이었다.)

그렇게 배로 와다다 뛰어가서 선원 분들에게 물어보니, 오후에 바람이 세져서 우이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실패를 맞은 후, 커피를 마시며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주변 카페를 찾았고, 유일한 찻집인 여객터미널 2층에 있는 아담한 꽃차 가게에 들어갔다. “어디 여행하는 길이에요?” 라는 사장님의 질문에...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사연을 쏟아내며 “분명히 우이도 여행을 왔는데 우이도를 못갔어요. 저희가 왜 여기에 있을까요? 하하하하하” 라고 이야기하며 모두가 한바탕 웃은 후, 오늘도 시작된 표류의 계획 회의를 시작했다.

선원 분께서 내일 아침 7시에는 진짜 우이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니, 다시 한 번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보기로 했다. (이후 사장님은 마실 잠깐 다녀오겠다며 가게를 떠나셨다.) 우리는 우이도 민박집 사장님께 다시 연락드려 오늘도 못 가게 되었으니 내일 만나자는 인사를 드렸고, 핸드폰 너머 민박집 사장님도 웃고 우리도 한참을 웃었다.

찻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섬사랑 6호 배는 왠지 더 여유로운 시간이 흐르는 듯 보였다. 선원 분들이 갑판 물청소 하고, 페인트칠하며 정비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스러운 마음도 잠시, 연수원으로 돌아가 기에는 거리가 멀었고, 내일 새벽에 다시 항구로 나와야했으므로 오늘 당장 묵을 숙소를 찾아야 했다. 도초도 항구 근처도 역시,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숙소 이름뿐이었으므로, 직접 걸어 다니며 보이는 숙소 몇 군데에 들어가 시설을 보고 가격 확인하며 매표소에서 50걸음, 바다까지 10걸음, 빨간 간판에 하얀 글씨로 ‘코리아나 모텔’이라고 써있는 2층짜리 숙소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표소에서 만났던 매표소 직원 아저씨와 아내 분을 만났다. 낮에는 매표소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숙소를 운영하는 도초도 항구 큰 손 이셨던 것이다. 낡은 시설이지만 친절한 사장님들이 계셨고, 심지어 창문 열면 바로 바다가 보이는 나름 낭만 있는 숙소였다. 한결 편한 마음으로 저녁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국적으로 느껴지는 집들, 바나 너머로 지는 노을을 보며 여유로운 섬사람의 하루를 마무리했다.

다음 날 새벽 6:00 검붉은 태양빛이 어스름 비칠 무렵, 짐을 단디 싸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항구로 향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시 또 받아들이면 된다는 여유정도는 생겼던 것 같지만, 순간순간 어이없는 나의 상황이 웃겨 웃음이 새어나왔다. 우이도 여행 실패 3일차, 이제 섬사랑 6호 배는 실루엣만 보고도 알아볼 수 있었고, 오늘은 왠지 선원 분들의 움직임이 남달라보였기에, 우이도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표소에는 우리보다 일찍 나온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우이도에 살고 계신데, 어제 병원 가려고 도초도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배가 뜨지 않아 우리처럼 하룻밤 묵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셨다.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친밀감과, 이제 정말 우이도 여행이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이 동시에 들었다. 매표소로 코리아나 모텔 사장님이 들어오셨고, 드디어, 섬사랑 6호 배 티켓을 전해주셨다!

“잘 다녀와요~ 내일도 배 안떠서, 이제는 우이도에서 못나올 수도 있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할 괜찮아울 ㅎㅎ ㅎㅎ, 다녀오겠습니다~~!”

도초도 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3일째 매일 만나는 섬사랑 6호 배 선원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배에 올랐다. 도초도에서 점점 멀어지며, 수평선 위로 태양빛이 밝아지는 모습이 참 평화로웠다. 그 동안의 표류여행에서 수고했다며 배 위에서 아름다운 일출을 맞이하는 선물을 받는 것 같았다. 어둠에서 점점 밝아지며 빠알간 빛으로 밝아지는 일출과 하늘 빛 따라 주황색으로 반짝반짝 물드는 바다 윤슬이 참 아름다웠다. 2시간 남짓 주황 물살을 가르며 달리던 배 속도가 줄어들며 거대한 검은 산 같이 보였던 섬 하나가 가까워졌다. 가까워질수록 섬의 푸른 나무들과 파란 지붕을 가진 집 서너채가 보이며 그토록 바라던 우이도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이도 있는 우이도 여행은 다음 편에서...)

그 여름, 뜨겁고 찬란한 프라하에서의 기억

김희성

여름, '여름' 하면, 무더위, 반소매, 아이스크림, 그리고 여름휴가가 생각난다.

내게 가장 최고의 여름휴가는 2015년 남편과 함께한 동유럽 여행이었다. 신혼여행 이후로 딱히 여행다운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해서 결혼 전부터 내 위시리스트 중 하나였던 유럽여행을 드디어 가게 되었다. '유럽여행'이라고 하면 보통은 먼저 서유럽을 가곤 하는데, 나는 동유럽이 가고 싶었다.

"이번 여름에 휴가가 언제야? 휴가 맞춰서 이번에 유럽 가는 거 어때?"

"그래 알았어."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남편은 "아니, IS도 있어서 위험하다는데 괜찮아?"라고 하면서 강한 의구심과 함께 여행을 약간 싫어하는 내색을 표한다.

하지만 이미 알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나는 '알았다고 할 때 바로 예매해야지' 생각하며 바로 루트를 짠다. '체코 프라하 인 - 오스트리아(빈, 잘츠부르크, 할슈타트) -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웃' 남편과 나에게 딱 맞는 휴가 기간은 얼마 없어서, 날짜도 이미 정해져 있고 비행기 표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싸고 비싸고 따질 여유가 없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남들은 7~80만원 짜리 항공권을 잘도 구한 다던데, 나는 많은 사람이 피한다는 8월 초로 구하다 보니 터키 이스탄불 1회 경유임에도 1인당 거의 200만원 짜리 항공권을 2장을 사야만 했다. 정말 비싼 항공권이어도 기분만은 날아갈 듯 너무 기뻐다. 혼자서 바쁜 와중에도 일하다가 틈틈이 '동유럽 여행'을 생각하면 너무 즐거웠다. 프라하에서는 프라하 성을 꼭 가봐야지, 오스트리아는 음악의 도시이니만큼 음악을 들으면서 거리를 걸어볼까? 할슈타트가 엄청 좋다는데 1박을 할까, 당일로 갈까? 너무너무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날 새로운 여정을 계획하는 데 흥분된 시간을 보냈다. 방에는 에어컨이 있을까? 여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네, 숙소를 고르는 재미도 쏠쏠했다.

내게 또 한 번, 동유럽을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단연 체코 프라하를 가고 싶다. 8박 10일을 일정

중에 왜 체코가 가장 좋았을까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남편과 나 둘 다 지치지 않은 여정의 설레는 첫 도시여서였을 것이다. 새로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무척 떨리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체코 프라하, 붉은 지붕과 중세 도시 느낌의 시내, 캐리어를 끌고 첫 호텔을 찾아가는 길, 울퉁불퉁한 바닥 돌부터 오랜 세월의 고전적 느낌을 주는 도시에 도착했음을 체감했다. 마치 동화나 소설 속 배경의 한가운데 나와 남편이 툭 하고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구글 맵을 보면서 골목길을 따라 예약한 호텔에 도착했다.

우리는 짐을 풀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시내 구경에 나섰다. 거리를 거닐면서 예쁘고 아기자기한 상점도 구경하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이국적인 성당과 뾰족한 건물들, 정시가 되면 새가 나온다는 시계탑도 구경하면서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처음 가고 싶었던 곳 비셰흐라드, 블타바 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조용한 그곳은 스메타나, 드보르자크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꽃이 여기저기 놓여있어 예쁘게 꾸며진 묘지에서 드보르자크 묘지를 찾아 둘러보는데 정원처럼 화려해서 이곳이 묘지인가 싶을 정도였다. 비셰흐라드 안쪽에 몇 군데 식당이 있었는데 전망을 보면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알아봐 둔 터라 그곳으로 향했다. 돌로 된 문을 통과하니 야외 테라스 돌담 아래로 블타바 강과 그 주변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다. 시원한 맥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뜨거운 햇빛을 피해 조금 쉬어갔다. 우리처럼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맥주와 튀김을 먹으며 더운 대낮 햇빛을 피해가고 있었다. 돌이서 예쁜 블타바 강이 나오게 셀카를 찍을 때면 해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햇볕이 뜨겁고 너무 강렬해서 눈이 절로 찢어졌다. 여름이라 푸르른 나무와 쭉쭉 자라는 잔디와 풀들이 한적한 그곳에 참 잘 어울렸다.

프라하 성에 올랐을 땐 동시에 '우와~'라는 환호성이 나올 만큼 풍경이 참 아름다웠다. 예쁜 붉은 지붕들이 불규칙적이면서도 통일성 있게 마을을 채우고 건물 사이사이에 골목길은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었다. 성 비타 대성당 안쪽에 들어가니 높은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벽의 중앙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스테인드글라스들이 이곳저곳에 펼쳐져 여러 개의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은은하게 땀을 식혀주었다. 스테인드글라스 벽화는 성당 양쪽 벽면 주축 사이사이에 네다섯 개 정도씩 있어서 조용히 성당 내부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옆에는 성 이르지 성당, 황금소로, 달리보르카 탑을 둘러볼 수 있었다. 황금소로는 16세기부터 금은 세공사들이 살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오래전에 성을 지켰던 병사들이 살던 오두막이 있던 곳이라고 했다. 아주 작은 집에

여기저기 갑옷과 투구들, 금으로 된 물건들을 전시하고 팔기도 했는데 이렇게 작은 집에서도 사람이 살았구나 싶을 정도였다. 달리보르카 탑에는 지하 감옥으로 쓰였던 곳이 있어서 고문 기구 등을 전시해둔 곳이었다.

밖으로 나오니 너른 뜰에 몇몇 아이들과 어른들이 둘러앉아 비눗방울을 구경하고 있었다. 거할 것도 없었지만 어떤 소년이 비눗방울을 준비해서 다양한 모양의 막대기와 실 등을 이용해서 크고 작은 비눗방울을 만들고 있었다. 세계 어디를 돌아봐도 비눗방울은 최고의 놀이기구였다. 아이들은 작은 방울들을 서로 손으로 터뜨리겠다고 꼬물거리는 손을 자신의 머리 위로 최대한 뻗고 이리저리 쫓아다녔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서로 부딪쳐 다칠까 염려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아이들의 생기 어린 모습을 담고 싶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흐뭇하게 구경하고 있었다. 우리도 한참을 서서 비눗방울이 만들어내는 표면에 무지갯빛 움직임에 따라 그 시간을 즐겼다.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좋은 여행이지만, 비눗방울과 같은 별거 아닌 것에도 즐거움과 여유를 느끼는 것이 참 신기한 경험이었다. 어쩌면 딱 그곳, 그 분위기여서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프라하에서의 여유로웠던 시간, 무척 더워서 햇빛이 강렬했던 찬란한 8월 여름날의 기억이다. 7년이 지난, 올해 여름도 햇빛은 여전히 강하다. 오늘, 뜨거운 햇살을 보니 그 여름 더운 여행 기억이 더 생생해진다.

한 여름 속을 걷다

박서연

연일 불볕더위더니 오늘은 구름이 드리워져 내다보는 바깥 풍경이 상대적으로 선선해 보인다.

오늘은 좀 걸어도 되지 싶다. 회사까지는 약 1.8km 내외, 큰 횡단보도 2개와 작은 횡단보도 1개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면 대략 22~25분쯤 소요된다. 두 달 여전 이사를 와서는 내내 걸어 다녔는데, 요즘 날씨에는 걸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더욱이 새 차를 장만한 요즘엔 거의 걷지를 않았다. 차를 타면 불과 5분이면 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좀 민망하고, 죄책감이 들어 아침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차를 타고 출근했다. 출퇴근 시간에 걷는 것 외에 따로 운동하지 않기에 드는 죄책감이다. 더욱이 주말 내내 뒹굴뒹굴하며 먹기만 해했던 터라 오늘 느끼는 죄책감은 더욱 크다.

선크림을 바르고, 양산과 손 선풍기를 챙겨 용감하게 여름의 태양과 정면승부를 하기로 한다. 회사로 가는 길은 대로변 옆 인도를 걷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첫 번째 큰 횡단보도를 건너고부터 큰길 옆으로 난 공원길을 걸으면 호젓하니 걷는 맛이 있다.

모처럼 걷다 보니 건너편 건물의 담벼락을 오르고 있는 능소화가 눈에 들어왔다.

해마다 동네 어귀 어느 집에서 비릿한 밤꽃향이 짙어 오고, 담장에 주황색 능소화가 피면 '여름이구나.' 했었다. 원래 붉었던 벽돌담을 흰색 페인트로 칠한 집이었는데, 마치 도화지에 그려 넣은 듯 주황색 꽃과 초록색 잎이 어우러져 참 예뻐다. 그 집 맞은편 오래된 아파트의 허름한 울타리 사이로 뻗은 능소화와 함께 꽃 터널을 이루었다. 이제 다시는 그 꽃 터널을 지날 수는 없게 되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고, 온 동네 집들이 재개발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짝짝 뻗은 아파트들이 들어

서면 나름의 또 다른 풍경이 그려지겠지만, 색감도, 정취도 다른 모습일 것이다.

낡고 오래된 것들이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는 건 당연하다 여겨지지만, 한편 아쉬운 마음도 든다. 우리 집은 재개발에서 제외된 건물이었기에 그 집을 떠나기 전까지 동네의 재개발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단독주택이 많은 곳이어서 마당에 나무가 심어진 집이 많았더랬다. 철거과정에서 목련이며, 벚나무, 배롱나무, 밤나무, 감나무 등등과 특히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라일락도 무참히 베어졌다. '왜 멀쩡한 나무들을 옮겨 심지 않고 베어버릴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웠다.

공원 쪽으로 난 길로 들어서니 무궁화도 활짝 피었다. 이것 또한 떠나온 동네에서 많이 보던 풍경이다. 분홍색 꽃이 한여름의 초록을 더욱더 푸르게 보이게 한다. 흐르던 땀도 잠시 잊힐 만큼, 마냥 덥게만 느껴졌던 여름이 푸릇해 보인다.

아트막한 오르막길을 걷다 보니 목 뒤로 땀이 흥건하다. 맞은편에서 맑고 뽕송뽕송한 얼굴의 아가씨가 살랑살랑 걸어와 나를 스친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너도 늙어봐라~~ 쳇!!' 공연히 초라함과 부러움에 혼자 부르르한다. 젊을 때는 한여름에 긴 머리 나풀거리며 다녀도 땀이 별로 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머리카락 한 올만 흘러내려도 덥고,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이며 등에 땀이 주르륵 흐른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마지막 횡단보도 구간이다. 이제는 그늘 하나 없는 대로를 지나야 한다. 아직 구름이 드리워져 있어 어제만큼 맹렬한 기세의 햇살은 아니지만 그래도 7월 말의 태양은 뜨겁다. 양산을 펼쳐 들고 남은 길을 재촉한다.

길가에 그 많은 비둘기들이 보이지 않는다. 7월의 태양을 피해 피서를 하러 간 모양이다. 새들은 어디에서 비를 굶고, 태양을 피할까?

집을 나선 지 23분 만에 회사에 도착했다. 목과 등이 땀으로 젖어있다. 여유 있게 나온 덕에 아직은

나 혼자다. 사무실의 에어컨이 실내온도 33℃를 표시하고 있어 땀을 식히는 데 시간이 걸릴 테지만, 오롯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이다. 컴퓨터 전원을 켜고 몇 자 끼적거려본다.

<걸으면 차를 타고는 보이지 않은 많은 것들이 보인다. 보이는 만큼 생각의 갈래들도 다양해져 뇌의 근력을 단련시킨다.> 라고 첫 문장을 시작해 본다.

내일도 걸을 수 있을까?



마지막 선물

설지은

2020년 7월 5일 일요일 10시 40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시누이 가족이 오자마자 힘겹게 이어가던 아버지의 얇은 숨소리가 멈췄다.

“아빠가 너 보고 가려고 기다렸나보다. 아이고~ 근히 아빠~ 애들 다 왔어요. 눈 좀 떠봐요.”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도 아버지의 죽음은 실감나지 않았다. 심장이 멎는 순간 아버지의 몸은 뻗뻗하게 굳어갔고 발끝부터 차갑게 식어가던 몸은 완전히 온기를 잃었다. 마치 컴퓨터 전원이 꺼진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신체 기능이 일시에 정지되었다. 이렇게 지난 여름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신지 채 세 달도 되지 않아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났다.

5월 9일 어머니 생신 축하 겸 어버이날 기념으로 시댁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빨리 아버지와의 이별을 맞이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평소 당뇨가 있어 매일 피검사를 하시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시던 아버지는 재작년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다. 다행히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 오신 덕에 암은 초기에 발견되었고 수술도 잘 되었다. 그러나 작년에 암이 재발했고 일주일만에 한번 받던 항암치료를 매주, 그러다 2~3일 입원하여 받게 되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운전을 하실 만큼 컨디션이 괜찮으셨던 아버지가 입원치료를 받으신 후 잘 드시지도 못하고 화장실 갈 때도 몇 번을 주저앉는다고 어머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평소라면 버선발로 맞이하셨을 아버지께서 힘없이 소파에 앉아 우리를 맞이하셨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어이구~ 우리 예쁜이들! 할머니가 너희들 좋아하는 샤브샤브 준비했으니 얼른 손 씻고 먹자.”

때마침 시누이 가족들도 도착하여 함께 밥 먹을 준비를 하였다.

“아빠~ 몸은 좀 어퍼셔요?” 그렇게 예뻐하던 딸이 아빠 손을 꼭 잡고 물어도 아버지는 살가운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셨다. 소파에 앉아계신 아버지의 몸이 주룩룩 자꾸만 미끄러져 내려갔다. “왜 똑바로 앉지도 못해요?” 어머니가 타박하며 아버지 겨드랑이에 두 손을 끼고 다시 자리에 앉혔지만 아버지의 몸은 종이인형처럼 힘없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거실 상 위에는 어머니께서 준비해 놓은 샤브샤브 육수가 맛있게 끓고 있었다.

시누이 부부와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영 기운을 못 차리시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집 앞 병원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신랑이 버너 불을 끄자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육수가 잠잠해졌다. 신랑도 말이 없었다. 이십 분 뒤 영양제 주사를 맞고 두 시간 뒤에 온다며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다. 영양제를 맞고 오셔서 그런지 아버지가 기운을 조금 차리신 것 같았다. 힘겨운 걸음을 옮기시던 아버지가 안방에서 흰 봉투 네 장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 예쁜 딸들... 할아버지가 생일선물 줘야지. 할아버지 앞에 앉아봐... 예진이는 할아버지가 3월에 줬고, 지민이는 7월, 보민이는 8월, 예윤이는 10월 할아버지가 미리 줄게”

“아빠, 아직 생일도 한참 남았는데 왜 미리 줘요~ 애들아! 우리 생일 때 할아버지한테 또 용돈 달라고 해서 올해는 두 번 받자” 시누이의 말에 아버지도 희미하게 웃으셨다. 흰 봉투 안에는 뽀뽀한 만 원 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다. 매년 손녀 생일마다 아버지께서는 꼭 새 지폐를 직접 은행창구에서 찾아와 주시곤 했다.

손녀들을 보고 조금 기운을 차리신 듯 아버지도 상 앞에 앉으셨다.

2시도 넘는 시간. 늦은 점심에 아이들은 정신없이 소고기와 야채를 육수에 담갔다 빼서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두어 숟갈 국물을 뜨시고는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

그 주 토요일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응급실로 실려 가셨고 곧바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셨다.

7월 4일. 한 달 동안 무려 3차까지 이어진 전문직 시험이 모두 끝나고 신랑과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영 잠이 오지 않아 아니 잠을 자고 싶지 않아 새벽 2시까지 TV 채널을 이리 저기 돌리다 잠이 들었다.

새벽 6시경. “아버지 1인실로 옮기셨다. 아무래도 와봐야겠다.” 어머니의 떨리는 전화 목소리에 아이들을 깨워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준비 없이 허망하게 올 줄이야...

일주일 후 나는 전문직 합격 소식을 받았다.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마지막 선물을 주셨다고 한다.
“아버지께서 머느리를 무척 아끼셨나봐. 시험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지은씨는 아버지 덕분에 합격한 것 같아.”

나는 여름이 되면 조기를 먹을 때 “넌 젓가락질도 못하냐?”며 손수 가시를 발라 내 밥그릇에 조기살을
놓아 주시던 아버지를, “고기 먹을 때는 밥 먹는 거 아니다.”며 유난히 고기를 좋아하시던 아버지를,
애들이 아파 전화 드리면 “아빠 엄마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걱정 말고 출근해” 하시던 아버지가
생각난다.



12년 전 그 해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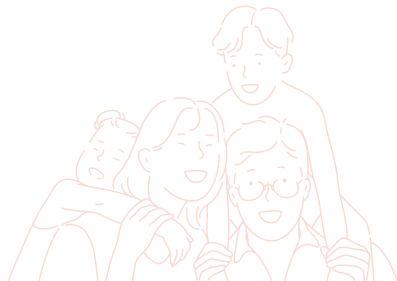
이수현

수많은 여행과 만남과 사건들이 준비하는 여름이라는 계절에게서 느껴지는 향수는 무언가 인상적인
인생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계절이라는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좋
아하는 나에게 여름은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어딘가에 함께 가기 좋은 계절이다. 12년 전 그해 여름,
난 대학원에 다시 입학했다. 20대에 대학원까지 마치고 시집도 가야한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운 엄
마에게 배신을 때리고 난 30대를 맞이하여 연애는 실패, 대학원은 한 번 더 가겠다고 새로운 삶의 시
작점을 만들고 있었다. 뭐 연애의 실패를 공부로 잊겠다는 작은 욕망도 있었지만, 인생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없을 것 같은 큰 절망도 있었기에 새로운 시작이 간절히 필요했던 시점이기도 했다.

그리고 대학원 시작 전 마지막 소개팅이 있던 날이다. 그날 나는 직장에서 도전한 대회에서 좋은 성
적으로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소개팅에 나가는 마음은 여름의 푸르름과 달달한 솜사탕과 동동
떠 있는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다. 내 삶에 아팠던 일 따위는 없던 일인양 나르시즘에 취해 사실 누구를
만나도 나를 사랑해서 많이 웃었을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 만난 의외의 연하남은 그런 풍선같이 자
아도취에 취한 내 마음을 두동실 받쳐주는 사람이었다. 길거리에 나오는 냉면 냉면 냉면하는 무한도
전의 노래에 길다란 몸으로 팔을 돌리며 춤을 추어서 당황스레 날 웃게 하고, 끝없는 칭찬과 질문으로
나를 내내 웃으며 대답하게 만들었다. 언제 끝났는지 모를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집에 갈 시간이 되자
그는 집까지 선뜻 데려다주겠다고 나섰고 그날 이후로 그와의 만남은 늘 나를 웃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대학원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밤마다 전화로 이승기의 '나랑 결혼해줄래'를 끊임없이 불러댔다.
전화로 부르는 노래에 부끄러움이 묻어있을 법도 한데 그 밤에 기타까지 들고 다정하게 몇 곡의 노
래를 불러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마음에 쌓은 벽돌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던 것 같다. 시작
의 두근거림이란 세파에서 얻은 슬픔과 절망, 명예에 대한 욕심까지 내려놓고 사랑의 터널로 진입하
게 만든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두 번째 대학원까지 가서 난 수업이 시작하기 직전까지 이 남

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직진하는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이 소중하고 고
와서 반짝반짝 빛났던 것 같다.

우리는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여름의 한복판을 여행하고 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사계절이라면
우리 부부가 서 있는 지금 시기는 여름 즈음이지 않을까 싶다. 늘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즐기던 이 계
절이 지금은 열한 살, 여덟 살 두 아이와 함께 하는 설레기도 하고 진땀나기도 하는 진정한 여행자의
여정이 되었다. 그 곁에는 부모님이 아래층에서 잠을 자고 있어도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지금 보
니 참 철없던 남자가 그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어있고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
에 드는 선곡을 찾아 주말 늦은 아침을 깨워주는 이 사람이 내 사랑이다 싶다. 참, 그 대학원을 나는
그 후로 십 년이 지나고 마쳤다. 그래도 꾸역꾸역 논문을 쓰겠다고 하면서 두 아이와 남편을 떼어놓
고 나르시즘에 빠질 준비를 한 채 대학원 공부를 마무리한 것이다. 그래도 나이 마흔에는 위험한 나
르시즘이 쉽게 찾아오진 않았다. 지금은 내 곁에 딱 붙어있는 세 사람에게 받는 사랑이 넘쳐서 굳이 나를
더 사랑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하다. 십 이년 전 그 해 여름 난 나의 나르시즘까지 사랑해주는
더 없이 사랑 넘치는 사람을 만났다.



여름 우리집

조선영

우리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다.

대학시절 엄마의 건강 악화로 인천 안에서도 공기 좋은 단독주택을 찾던 중 십정동 개발 제한구역
안에 열우물 중 한 개의 우물을 마당에 품은, 전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수 지으셨다던 옛날 집.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짜에 맞춰 부모님은 가평에 집을 짓고 내려가시고는 이 집이 우리 차지가
되었다. 마당이 있어서 꽃피는 봄에도 좋긴 하지만 여름엔 더욱더 진가가 발휘되는 우리집.

마당 한쪽엔 수박장수들이 쓸 법한 큰 그늘막에 모기장을 해 두고 한 가운데엔 아이들도 어른들도
들어갈 큰 수영장을 펴고 신랑은 그 옆에서 고기를 굽고 할머니는 옥수수와 감자로 물놀이하는 아이들
먹을거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신다. 다른 쪽 마당엔 빨간 방울토마토와 건드리기만 해도 향이 진동을
하는 도라지꽃과 더덕줄기. 할머니랑 딸아이랑 손톱에 예쁘게 물들일 봉숭아랑 고기와 함께할 상추
와 깻잎, 아이들과 매년 씨를 모아 다시 뿌리시는 예쁜 분꽃과 담벼락 한가득 솜사탕 덩어리 같은 능
소화꽃들이 이 계절을 가득 채우면 한여름 가운데에서 내 아가들이 나를 부른다.

여름엔 뭐라고요? 당연히 맥주입니다!

호문웅

한껏 달아오른 태양이 끊임없이 열기를 내뿜습니다. 길바닥에서는 신기루라도 보는 것 같은 아지랑이가 모락모락이 아니라 이글이글 피어오릅니다. 끈적하게 달라붙는 바람은 시원하지도, 등줄기의 땀을 식혀주지도 않습니다. 온도계의 숫자는 36. 물먹은 종이를 휘감고 불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습하고 뜨거운 대한민국의 여름입니다. 열 오른 숨을 헉헉 내뿜다 보면 시원한 것이 절실히 집니다. 이럴 땐 뭐가 필요할까요? 목이 따갑도록 시원하게 넘어가는 차가운 맥주가 간절한 계절, 여름입니다.

맥주를 처음 입에 대 본 것은 아마도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저학년 언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19세가 넘지 않으면 술도 담배도 살 수 없지만, 내가 어릴 때는 국민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한 꼬맹이가 술과 담배를 사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때라고 애들이 버젓이 담배를 물고 술을 들어켰던 것은 아니고 아버지나 집안 어른의 심부름이었죠. 그만큼 아이들에 대해 술과 담배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요즈음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집에서 잔치를 여는 경우가 드물지만 88 서울 올림픽이 열릴 무렵까지는 경사가 있는 집이 바로 행사장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안방이 VIP 룸이 되고 작은 방이니 마당이니 할 것 없이 손님이 가득한 시끌벅적한 행사장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런 분위기에 들떠서 이 방 저 방, 이 상 저 상을 왔다 갔다 하구요. 어른들 사이를 까불거리며 돌아다니는 녀석을 붙잡고는 술 한 모금을 마시게 해서 부르르 진저리 치는 모습에 허허허 크게 웃는 어른이 꼭 계시곤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맥주를 처음 마셔보았었는데 딱히 못 마실 쓴 맛도 아니어서 꿀꺽꿀꺽 잘 마시곤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여~ 이 녀석 봐라. 얼굴 하나 안 찡그리고 잘 마시네!” 하며,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어른들이 하하하 웃으며 소란스러웠었죠.

요새 같으면 아동학대로 끌려갈 일인지도 모르지만 국민학교 5학년 때 어머니와 같이 찾아뵈던 친척 어른이 ‘치킨 호프집’에서 내게도 생맥주 500cc를 시켜 주셨다. 어른들의 재미없는 대화에 관심이 없던 나는 그걸 훌쩍훌쩍 마셔댔었고 어느새 한 잔을 다 비웠었나봅니다. 이 녀석 맥주 잘 마신다며 감탄을 하시더니 또 한 잔을 더 시켜 주셨으셨죠. 두 번째 잔은 내가 거의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어릴 때 접했던 맥주는 쓰고 맛이 이상한 술이 아니라 무언가 구수한 맛이 느껴지는 씹새로운 맛의 시원한 음료와 같았습니다. 어이없게도 나는 엉뚱한 데에서 될성부른 싹을 보인 아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일찌감치 담배와 술에 친숙했던 것은 아니고 특별한 때에 어른들이 한 잔씩 주시는 술 외에는 스스로 마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꼴보였거든요. 내가 처음으로 직접 술을 사서 마셨던 것은 고3 시절 학교고사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였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저녁, 같은 독서실을 다녔던 친구와 독서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호프집을 찾아들어갔습니다. 성인은 아니었지만 곧 성인이 된다는 호기로움이었을까요? 맥주 두 병과 간단한 안주를 시켰습니다. 1980년대의 중, 고등학교는 교복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른바 교복 자율화 세대여서 사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지만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옛된 티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도 호프집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맥주를 내어 주셨더라고요. 옛 어른들은 남의 자식 혼내기도 잘 했지만, 봐주기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마셨던 맥주는 OB맥주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맥주 브랜드는 딱 두 가지로 OB맥주와 크라운맥주 뿐이었습니다. OB맥주는 청량감을 맥주의 최고 가치로 삼던 당시의 맥주 애호가들의 기호에 부응한 시장 1등 브랜드였습니다. 맥주의 맛을 알 리 없던 고등학생이었지만 수험생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식혀주었던 청량함만은 어렴풋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부터는 매일 매일이 회식의 연속이었고, 막걸리, 소주, 맥주의 알코올 삼총사를 만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나는 맛도 모르겠는 독한 소주나 취하면 답이 없는 막걸리보다 맥주 마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는 병맥주보다 생맥주가 양이 많은데다 가격까지 싸았어요. 호프집에서는 그 생맥주를 3000cc 피쳐로 시키면 여럿이 마시기에 가성비가 그만이었었는데, 들기에도 무거운 그 잔을 들고 한 번에 다 마시는 내기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밑바닥을 거꾸로 해서 빈 잔을 머리 위로 털어내며 무슨 세계 제일의 상남자라도 된 양 어깨를 으쓱대던 때였죠. 내게는 ‘오로지 마셔서

없애는 용도로 만들어진 노란색 탄산 알코올' 정도로 밖에는 자리매김 할 수 없었던 맥주의 암흑기였습니다. 맛이라고는 도통 느껴보질 못하던 맥주의 암흑기.

졸업 후 잠시 제약 회사에 몸담았다가 봉제완구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나는 해외 영업부 소속으로 일본 바이어들을 주 고객으로 담당했습니다. 생산 공장도 베트남과 중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베트남, 중국 출장이 잦았죠. 일본에서 바이어와 저녁 회식을 하게 되면 우선 생맥주를 시키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식당에 들어가면 '토리아에즈 나마(일단 생맥주)' 라는 말을 인사말처럼 합니다. 어떤 메뉴를 시키든지 우선 생맥주 한 잔을 들이키며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식사를 진행해가면서 주종을 바꾸던지 합니다. 그 덕분에 일본에서는 생맥주를 많이 마셨는데 그 맛이 그토록 마셨던 우리의 생맥주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맥주를 유리잔에 팔팔팔 따르게 되면 거품이 많이 차올라 거품의 부피만큼 맥주의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크림 생맥주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거품을 중요시한 맥주가 대세이지만, 2천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거품이 많게 맥주를 따르면 실례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맥주의 거품은 쓸데없는 맥주의 부산물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일본의 생맥주는 이 거품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잔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손을 대면 부드러움이 묻어나올 것만 같은 새하얀 거품이 노오란 액체 위를 잔뿔 뒤덮고 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히말라야 꼭대기를 뒤덮은 빙설의 당당함과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그 거품은 맥주를 담고 있는 유리잔 위의 경계를 넘어 흘러내릴 듯 말 듯 붓듯이 솟아올라 있습니다. 살짝 누르면 포근히 감싸 안아줄 것 같은 폭신함이 눈에 보입니다. 금방 푸르르 흘러져버리는 성긴 방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거품이 알알이 단단히 모여 있지 않으면 우유로 만든 생크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겠죠. 그 거품에 입술을 가져가 그 부드러움에 놀라고 있는 찰나 거품과 함께 액체가 입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거품과 함께 들어와 목젢 저 뒤로 사라져가는 액체는 내 혀 위에 구수한 뒷맛을 진하게 남겨놓았습니다. 아... 다릅니다. 이건 정말이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시던 생맥주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원하게 목 뒤로 넘기는 청량감 외에 맥주의 미덕을 생각해보는 적이 없었는데 이곳의 생맥주에서는 맛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생맥주를 마시며 비로소 맥주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맥주는 '아사히', '기린' 등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내가 제일 즐겨하는 것은 '에비스'입니다. '에비스'는 청량감을 간직하면서도 보리의 맛을 두툼하게 간직해서 씹쓸함과 훌륭한 조화를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최고로 치는 것은 홋카이도 지방이 아니면 쉽게 맛 볼 수 없는 '삿포로 클래식'입니다. 맛의 풍부함과 거품의 부드러움이 시원한 목 넘김과 함께 보여주는 양상블은 일본 맥주 중 단연 탑입니다. 다만 판매가 지역 한정적이라 자주 즐길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맥주입니다. 홋카이도로 여행을 가시는 분에게는 반드시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인생 맥주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맥주의 시작은 일본의 맥주와 그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19세기 말엽 대규모 맥주 양조가 시작되었는데 여러 양조 회사가 명멸한 가운데 20세기 초에 '일본 맥주', '삿포로 맥주', '오사카 맥주' 3사가 합병한 일본 최대 맥주 회사 '대일본 맥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기린 맥주'와 함께 일본의 맥주 시장을 지배합니다. 이 중 '대일본 맥주 주식회사'가 1933년 8월 영등포에 '조선 맥주 주식회사'를 세워 지금의 하이트 맥주를 생산하는 기업의 시조가 됐고, '기린 맥주'는 같은 해 12월 서울에 '쇼와 기린 맥주 주식회사'를 세워 현재의 OB 맥주를 생산하는 기업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그 맛이 같았을지 모르나 세월의 흐름이 사람들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었나봅니다. 섬 나라에서는 섬나라대로 반도에서는 반도대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서로 다른 맛으로 변화하였으니 어떤 문물이든 그 땅의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다채로움이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의 베트남 생산 공장은 월남전 당시의 사이공, 지금은 호찌민이라고 불리는 베트남의 경제 수도격인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 호찌민 공항에 내려서 출구를 나설 때 그 모습이 우리의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상시키게 해서 놀랐고, 이어서 한밤중임에도 들숨이 너무 뜨겁게 느껴져 놀랐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고는 해서 뜨겁게 달궀진 현장의 지붕 아래에 있다 보면 정신이 멍해지고는 할 정도였지요. 이렇게 덥다보니 당연히 맥주도 더욱 찬 것을 찾기 마련인데, 21세기에 들어서서까지도 베트남엔 술만 넣어 놓는 냉장고가 따로 없는 식당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생긴 베트남만의 독특한 맥주 문화가 있는데, 바로 '얼음 맥주'입니다. 맥주를 얼려서 준다고 얼음 맥주인 것은 아닙니다. 맥주를 시키면 커다란 잔과 함께 얼음을 먼저 가져다줍니다. 정작 중요한 맥주는 상온의 미지근한 것을 그대로 줍니다. 내 몸이 원하는 차가운 맥주는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유리잔 속에 얼음을 넣고 그 안에 미지근한 맥주를 붓는 거죠. 얼음이 녹아서 맥주가 희석되면 그 풍미가 연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40도의 열기를 견디고 있는 몸에는 이미 풍미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시원한 것이 장땡.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도수가 높을수록 몸을 뜨겁게 덥히지 않

습니까? 희석된 맥주는 풍미가 떨어지지만 다행히 알코올 도수도 떨어뜨려줍니다. 도수가 높은 술은 화덕 속에 난로까지 퍼주는 격으로 사람을 뜨겁게 하니 더운 동네에서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풍미를 조금 덜어낸 대신 내 몸의 안전을 한 스푼 넣었다 생각하면 풍미 제로의 흐릿한 얼음 맥주는 나름의 미덕을 갖습니다.

호찌민의 국민 맥주는 '바바바(베트남어로 333) 맥주'와 '사이공 맥주'입니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북부에서 주로 맛볼 수 있는 '하노이 맥주'와 함께 베트남 맥주 3대장입니다. 사실 저온 냉장해서 마시는 '바바바 맥주'나 '사이공 맥주'는 나름의 풍미와 맛을 지닌 훌륭한 맥주입니다만, 식당 앞 노천의 지열이 엉덩이를 공격하는 플라스틱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마시는 맥주는 컵 가득히 담긴 얼음과 함께야야 베트남의 맛이 납니다. 베트남 사람과 컵을 부딪으며 '몰 하 이 바 요~(베트남어로 하나 둘 셋 예~)'를 외치면 그 땅의 뜨거운 열기마저 환한 웃음으로 남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중국에는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중국 맥주 하면 '양 꼬치엔 칭따오'라는 말로 잘 알려진 '칭따오 맥주'가 떠오릅니다. 사실 '칭따오 맥주'가 중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맥주인 것은 맞지만 그 외에도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얼빈 맥주', 저렴한 가격 덕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쉐화(雪花) 맥주',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옌징(燕京) 맥주' 등등 많은 전국구 맥주가 있고, 각 지역마다의 지역 맥주도 많습니다. 하나씩 마셔보고 입에 맞는 맥주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죠. 도수가 낮기로는 2도 정도인 것에서 높기로는 6~7도에 달하는 것도 있고, 맛이 연하고 흐릿해서 그저 마시는 행위에만 의미를 둘 정도인 것부터 향과 풍미가 멋들어져 음미하기 좋은 것까지 다양한 맥주가 있습니다.

칭다오가 19세기 말에 독일의 조차지가 되면서 독일인이 그곳에 맥주 공장을 세웠는데 그 공장이 지금의 '칭다오 맥주'의 기원이 됩니다. 칭다오의 맥주 공장은 독일의 설비와 원재료를 그대로 들여와 정통 독일 맥주를 생산했고, 그 기술과 맛이 지금의 '칭다오 맥주'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국 맥주 중에서 즐겨한 것은 '칭다오 맥주'에서 나온 '어거타(奧古特, Augerta)'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칭다오 맥주는 내 입에 그렇게 훌륭한 맛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이 '어거타' 만큼은 다릅니다. 좋은 음식은 그 재료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듯이 이 맥주에서는 재료 자체를 고급으로 사용한 맛이 난다고 할까요. 중국에 가시면 일반 칭다오 맥주 말고 이 '어거타'를 꼭 마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일본에서 마시는 생맥주의 부드러움이나 베트남의 얼음 맥주와 같은 특이함은 없지만 마신 맥주의 양

만큼은 중국의 맥주가 단연 1위겠네요. 중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일 긴만큼 맥주도 제일 많이 마셨거든요.

내가 에일 맥주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우연히 수제 맥주란 것을 처음 마시게 되면서였습니다. 수제 맥주 전문점이라는 곳이 드문드문 눈에 띄기 시작한 10여년 전 무렵, 집 근처에도 수제 맥주를 간판에 내어 적은 곳이 생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제(手製) 맥주는 직접 그 가게에서 손수 빚은 자가 제조(自家製造) 맥주라고 오해하고 있던 나는 그 집만의 맥주가 어떤 맛일까 궁금해 하면서 그 앞을 지나다니고 있었더랬죠. 그러고는 내 생일을 맞아 아내를 부추겨 그 집을 함께 찾았습니다. 거대한 맥주 양조통이 있거나 아니면 원액이 담긴 큼지막한 케그(keg)가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여기저기 돌레둘레 쳐다보아도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유행하던 세계 맥주 집처럼 다양한 맥주병이 가득 들어있는 냉장고만 있을 뿐이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제 맥주의 뜻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 '크래프트 비어(craft beer)'를 적당히 번역한 것이더군요. 영어 '크래프트(craft)'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려면 '수제 맥주' 보다는 '장인 맥주'나 '정성이 들어간 맥주'라는 뜻이 들어간 말로 명명했다면 좀 더 알기 쉬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맥주집의 사장님이 직접 권했던 맥주는 벨기에의 수도원 맥주인 '시메이(Chimay)'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반적인 와인 병 크기 정도로 병은 컸지만 한 병에 5만원이나 하는 고가였습니다. 맥주 한 병에 5만원이라고? 평소라면 금을 씻어낸 물을 섞었다 해도 5만원에 맥주 한 병을 사 마실 일은 없었겠지만 그 날은 생일이기도 하니 호기롭게도 그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따라 마시라고 내온 유리잔의 생김새도 그간의 맥주잔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와인 잔처럼 밑이 넓고 매우 큰데다가 잔 입구도 보통 사용하던 맥주잔의 두 배는 되겠더군요. 병을 기울이자 쿨럭쿨럭 매우 진한 갈색 액체가 흘러나와 잔을 채웠고 부르르 떠오르는 거품마저 흰색이 아니라 희미한 브라운. 컵을 들어 한 모금 입에 머금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콧속을 간질이는 달콤한 캐러멜 향. 혀를 어루만지는 무언지 모를 과일의 향취. 입 안 가득 부풀었다 사라지는 묵직함과 가벼움이 교차하며 목 뒤로 사라지는 달큰함이 그야말로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던 맥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약간 씹싸름하면서 살짝 구수한 맛을 느끼는 것 외에는 시원하게 마시는 것만이 맥주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랬던 내게 이것은 맥주가 아니라 제 3의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어째서 같은 맥주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다른 맛을 보여줄까요? 그 후에 인터넷 검색과 책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접해왔던 맥주는 모두 맥주의 한 종류일 뿐인 것을 알았다. 내가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중국의 주류 상업 맥주를 통해 맛보았던 것들은 모두 '라거 맥주'였던 것입니다.

현대의 맥주 분류는 어떤 효모(酵母, yeast)를 사용하여 발효시키는 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섭씨 15~24도의 상온에서 발효되어 효모가 위로 뭉뚱 떠오르는 상면발효효모(上面醱酵酵母)를 사용한 것을 '에일(ale)', 섭씨 7~13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효되며 효모가 밑으로 가라앉는 하면발효효모(下面醱酵酵母)를 사용한 것을 '라거(lager)'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일은 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짙은 색을 띠고 향이 강하며 맛이 깊은 반면, 라거는 에일 보다 색이 옅고 묽으며 짙은 향 대신에 마시기 쉬운 청량감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흑과 백으로 단순히 나뉘지 않듯이 에일이면서 라거의 특징을 가진 녀석도 있고, 라거 이면서 다분히 에일 흥내를 내는 녀석들도 있다고 하니 그냥 이 두 가지 분류만 간단히 알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량 적은 내 두뇌는 소중하니까요.

'시메이'를 접한 다음 날부터 나는 내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에일 맥주들을 사서 마셔보기 시작했고, 에일 맥주 안에서도 많은 분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알던 세상은 얼마나 좁았던지요. 맥주 한 가지에도 그 넓고 깊음이 끝이 없어 보이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맥주의 초기 원형은 에일이었고 라거가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부터였습니다. 맥주는 보리를 물에 담가 싹을 틔워 만든 맥아(麥芽, malt)를 다시 볶는 등 건조시킨 뒤 잘게 빻고, 살균 작용을 하며 쓴맛과 향취를 더해주는 홉(hop)과 물을 추가해서 끓인 후, 마지막으로 효모를 추가하여 발효시킨 결과물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맥아를 볶을 때 지푸라기나 장작을 땀는데 불 조절이 어려운데다 그 연기에 심하게 그을게 마련이어서 볶아진 맥아의 색깔이 까맣게 됐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자연히 맥주의 색깔도 매우 어두웠는데, 그 당시 부두에서 짐을 나르던 포터(porter)들이 즐겨 마셨기 때문에 '포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당시의 주류가 포터이다 보니 많은 종류의 포터가 생겨났습니다. 그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맛이 강한 것을 '스타우트(stout:군센) 포터'라고 불렀는데요. 시간이 흐르며 스타우트는 진한색의 에일을 대표하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흑맥주인 아일랜드의 기네

스(Guinness)도 이 스타우트입니다. 커피처럼 탄 맛과 미처 발효되지 못한 당분이 많이 남아 달착지근함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맥주의 색깔이 포터보다 밝아질 수 있었던 것은 17세기 들어 석탄에서 만들어낸 코크스(coke)라는 연료를 사용하여 그을음 없이 볶아진 맥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후 부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밝은 색 맥주가 '페일(pale:창백한) 에일'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또 이 무렵부터 유럽 대륙에서 들어온 홉(hop)을 넣은 에일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맥주를 마실 때 느끼게 되는 쓴맛과 씹살한 맛은 바로 이 홉의 역할입니다. 홉이 들어간 쓴 맛의 맥주는 '비터(bitter:맛이 쓴) 에일'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마침 이 무렵에 생겨난 '페일 에일'에도 이 홉을 넣게 되었기 때문에 '비터 에일'과 '페일 에일'을 혼용해서 사용했고, 지금도 '비터 에일'과 '페일 에일'이 큰 구분 없이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홉 첨가 맥주를 지금까지의 맥주였던 에일과 구별하기 위해 비어(beer)라고 부르게 됐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페일 에일'은 수입 에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크래프트 제조사의 에일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이기 때문에 라벨에 PALE ALE 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을 골라 비교하며 마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비터 에일'은 영국 런던의 '풀러스 EBS(Fuller's EBS)'라는 맥주가 간혹 수입된다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마셔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터 에일'을 접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이 때문이라도 영국의 본고장 펍에 꼭 한 번 가 보고 싶네요.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영국에서 인도까지 에일을 배에 실어 보내게 됩니다. 맥주가 배에 실려 몇날며칠 꿀렁꿀렁 멀미를 한참 하다가 인도에 도착하게 되면 상해버리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살균 작용을 하는 홉을 대량으로 넣은 맥주를 만들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 맥주에는 '인디아 페일 에일(IPA, India pale ale)'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덕분에 맛이 매우 강렬하고 처절하게 쓴 맛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쓴 맛에 붙어 넘어오는 진한 향기와 혀를 자극하는 목직함에 익숙해지면 이처럼 즐기기에 좋은 에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즐겨 마시는 에일은 바로 이 IPA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IPA는 즐기기에 어려운 종류였습니다. 그래도 몇몇 펍에서 영국 '브루독'사의 'PUNK IPA'나 미국 '구스 아일랜드'사의 'IPA'를 즐길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구스 아일랜드'사의 'IPA'를 국내 편의점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매우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아메리칸 비어는 라거든 에일이든 전체적으로 맛이 흐릿한 경향이 있는데 '구스 IPA'도 정통 영국 IPA에 비해 순한 편이

3 주차 여름

어서 쓴맛이 덜한 만큼 누구나 다가가기 쉽습니다. 국내 크래프트 양조사인 '카브루'사에서 출시한 '구미호 IPA'도 마트나 편의점을 통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구스 IPA'에 비해 향이 진하고, 쓴슬람이 강하니 진한 맛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그에 따른 대항 세력도 등장하기 마련인데 흡이 들어간 맥주의 쓴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등장한 '브라운 에일(brown ale)'이 있습니다. '브라운 에일'은 흡의 쓴맛을 약하게 하고 몰트의 풍미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명확히 '브라운 에일'이라고 분류된 맥주를 마셔 본 적이 없어서 뭐라 느낌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잉글랜드 '뉴 캐슬'사의 '브라운 에일'이 대표적이라는데 국내 마트에서도 가끔 수입된다고 하니 마트에 갔을 때 눈에 띄이면 바로 장바구니에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색이 더 얼어지면 그야말로 이름 자체가 '화이트 비어'인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스(Weiß:흰) 비어'는 말 그대로 '하얀 맥주'라는 뜻인데요. 실제 색깔은 매우 연한 갈색으로 스타우트에 비하면 하얗고 맑기는 하지만 그 색을 흰색이라고 하면 색맹 소리 들을만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매우 정확한 사람들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허풍이 심한 사람들인 지도 모르겠네요. '바이스 비어'가 연한 색인 것은 보리 맥아가 주 재료가 아니고 밀 맥아가 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스 비어'와 '바이젠(Weizen:밀) 비어'는 거의 동의어 취급을 받습니다. 저는 '에딩거(Erdinger)'가 처음 접해 본 '바이젠'이었는데, 사실 처음 마셔보고 깜짝 놀란 '시메이'보다 먼저 마셔 본 에일이었습니다. 라거와 에일의 구분조차 모를 때 마셔 보았던 '에딩거'는 라거 밖에 모르던 내게 매우 신선한 맛이었습니다. 무언가 앙금이 흩어져 있는 듯한 뿌연 황금색에 거품이 매우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라거에서는 느낄 수 없는 풍부한 곡물의 풍미가 있고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산미도 올라왔습니다. 매우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바이젠'이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입맛이 바뀌었는지 그 산미가 비릿하게 올라와 지금은 즐기지 않게 되었지만 한 때는 열심히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에일입니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벨기에의 '호가든 화이트(Hoegaarden WIT-BLANCHE)'도 밀 맥아가 들어간 에일입니다. 이 호가든도 산미가 짙어서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화이트 비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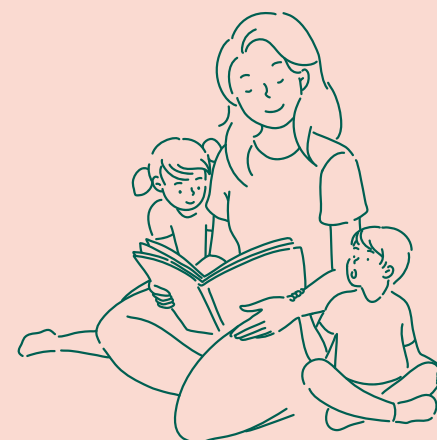
저에게 에일 맥주를 알게 해 준 '시메이'가 속한 벨기에 수도원 맥주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고, 이 외에도 하고 싶은 라거 맥주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다음 기회에 이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맥주는 시원하게 마시면 그만이라는 생각 속에 맛을 느낀다는 것은 떠올려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무시했던 그 안에 길게 이어져 온 역사와 그것을 만들어온 사람들의 고집과 함께 즐기고 마셔온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책 한 권으로도 풀어내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맥주 말고도 내 주위에 나의 관심을 기다리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무한한 이야기와 사람들의 삶내음이 담겨있겠지요. 이제 그것들을 찾아보아야겠습니다. 그 전에 편의점에 가서 시원한 '구스 IPA'를 사 와야겠네요. 지금은 뜨거운 여름. 맥주의 계절이니까요.



번외

기쁨



너라는 존재의 기쁨

이수현

내가 어른이 되고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있었다. 첫째라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다 해주고는 싶었다. 처음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모르면서 다 해주고 싶은 것, 그 사이에서 오는 딜레마일 것이다. 부부는 연애 때부터 서로 오래 보며 이해하고 양보도 해주지만, 처음으로 '아주 소중한 내 것'이라 여겨지는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가진 양육관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 둘 다 처음 하면서, 둘 다 처음 가져보는 양육관이면서 어찌나 고집을 부리게 되는지 우리 부부도 첫 아이를 낳고 딱 그랬던 것 같다. 그 만큼 우리에게 서로를 제외하고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리라. 첫 아이를 키우고 10년이 지나고 보니 아이 양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책을 읽어가며 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경험적 양육관을 갖고 얼마나 고군분투했는가 생각해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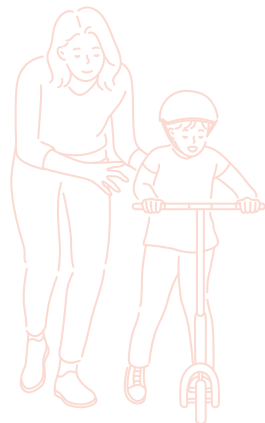
나의 아이 정후는 결혼을 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로 아주 서둘러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러면서 또 자궁경관무력증이라는 병으로 아주 위태롭게 찾아왔다. 신기하고 감사하면서도 당황스럽고 무서웠던 시간이다. 그 시간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첫 기쁨으로 찾아온 아이가 바로 나의 아들 정후이다. 잠을 잘 안자서 힘들었던 날들, 젖이 잘 안나와서 속상했던 날들, 직장 때문에 시부모님께 맡겨야 했던 날들, 모두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만 같은 불안이 컸지만 아이는 무럭무럭 커갔다. 정후가 6개월이 넘었을 즈음 복직을 하느라 시댁에 맡겨놓고 일주일에 서너 번을 퇴근한 뒤에 찾아갔는데 아직 마르지 않은 젖을 쪽쪽 간절히 빨던 아기 정후가 아직도 생각한다. 그 때 정후에게는 그 무엇보다 엄마인 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방법이 써서라도 내가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로 하고 시어머니와 도우미 이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나의 서투름과 부족함을 인정하기 바쁜 시간이었지만 어느새 정후는 내가 부르는 노래를 곧잘 따라 불렀고 여느 아이처럼 놀이터 투어를 사랑했고 잘 웃는 순둥순둥한 아이로 자랐다. 퇴근을 한 뒤 펄

쳐지는 제 2의 삶이 피곤하면서도 기뻐던 것은 내가 온전히 엄마로 사는 시간을 매일 가졌기 때문이었으리라.

정후는 네 살이 되자 혼자 글을 읽기 시작하고 숫자도 곧잘 세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은 정후 친구들은 아직 까막눈인데 정후는 글자를 다 읽는다고 신기하다고 하셨다. 유치원 때는 바늘 시계를 보고 시간의 덧셈도 꽤 잘했다. 모든 부모는 큰 아이에게 기대가 크다고 하는데 무엇이든 잘 해내는 정후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큰 기쁨을 느끼고 기대도 많다. 하지만 내가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어릴 적 나는 첫째로써 부모님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고 기쁜 일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어디에서나 칭찬받고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어디에서나 잘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음에도 여전히 잘해야겠다는 책임과 무게감이 나를 따라다녔다.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 나의 큰아이 정후가 나와 같은 어려움을 느낄까 걱정되기도 한다. 정후에 대한 걱정과 바람은 아마도 내가 정후에게서 나 자신을 보기 때문이고, 또 나의 부모님이 나를 키우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짐작되어서이기도 한 것 같다. 정후의 성장은 이렇게 나를 부모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장하게 만든다.

이제 정후는 의젓한 열한 살 남자 아이가 되었다. 여동생이 없었으면 엄청 심심했을 거라는 동생을 꿈쩍이 예뻐하는 오빠이고, 무거운 거 자기가 들 수 있다고 말하는 다정한 아들이고, 아빠 대신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불평 안하는 대견한 아들이다. 오히려 내가 정후에게 음식물 쓰레기 주지 말라고 남편을 탓하고 정후가 조금이라도 힘든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아프다. 남편이 자신보다 아이들을 위한다고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정후는 그 존재만으로도 나의 삶을 바꾸는 여찌 보면 내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아들 바보 엄마인 것이다. 며칠 전 물놀이를 하고 정후가 하루 열이 나서 안방에서 재웠더니 오늘은 체온 체크를 하면서 아쉬워한다. '아, 열이 안나서 엄마방에서 못자네. 아쉽다잉' 동생에게 일찌감치 엄마를 양보해서인지 우리 정후는 여전히 엄마 옆에서 자고 싶어 한다. 나도 아직 어리광부리는 그런 정후가 좋다.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빨리 커버릴까 싶어 시간을 좀 묶어두고 싶다. 지금이 아이들을 키우며 내 삶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할 때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웃는 나를 보며 지금의 아이들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한다. 그래서 나의 아이들, 나의 가족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었다. 이것이 지금 나의 시작이기에 이 글을 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쓸 수 없을 것 같았다. 내 삶의 첫 번째 순서,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기쁨에 대해
말해야 다른 나의 이야기도 쓸 수 있을 테니까.



2021 일상문화예술교육 뽀 —— 클래스

<나의 일상, 나의 이야기> 참여자 에세이

발행인 이영훈
발행일 2021년 9월
발행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pcf.or.kr
문의 032-500-2000

글쓴이 김경미 김은오 김희성 박서연
설지은 이수현 조선영 호문웅

총괄 고동희

기획총괄 김희영

기획 안효정, 이슬기

강사 최하나

이 책은 2021년 부평구문화재단 일상문화예술교육 뽀-클래스
<나의 일상, 나의 이야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